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5일 국토안보부를 방문, 멕시코 국경 담장 건축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이민자 압박 시작됐다

25일 멕시코 국경 건설, 이민자보호 도시 불이익 행정명령 교통 위반으로도 단속 대상 가능성, 불법 이민자 추방 강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5일 국토안보부를 방문, 멕시코 국경 담장 건축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단속국(ICE)에 협조하지 않는 '피난처(sanctuary)' 도시들에게는 연방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선 스피어에서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이 "남쪽 국경에 대형 담장을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며, 담장의 건설은 허술한 국경을 튼튼하게 하는 상식적 첫번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담장의 건설을 통해 "마약과, 범죄 그리고 불법이민자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대변인의 주장이다.

트럼프는 25일 ABC와의 인터뷰에서 "멕시코와 국경에 담장을 가능하면 가장 빠

른 3월경부터 건설할 것"이며 이는 미국 납세자의 돈으로 우선 건설하고 추후 멕시코에서 "100%" 돌려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멕시코 대통령이 결코 담장건설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박에 대해서 트럼프는 "그(멕시코 대통령)는 그렇게 말할 수 밖에 없다"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모두 어떤 형태로든지 돌려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두번째 행정명령을 통해 소위 '(이민)피난처' 주 또는 도시에 연방정부 보조금을 중단토록 했다. 이와 함께 선 스피어에서 대변인은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단속도 대대적으로 강화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피난처 시'에 대한 뚜렷한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시 소속 경찰들이 이민단속국(ICE)을 돕게 ▶▶2면으로 계속

## 한국인 70% 이민 가고싶다

선호국 캐나다 22.1% 1위 미국, 선호 3위 약간 상승 치열한 경쟁사회가 원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많은 한국 사람들은 '꿈도 희망도 미래도 없는 소위 '헬조선'에서의 탈출을 꿈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이 공동으로 성인남녀 4,802명을 조사한 결과 70.8%가 '기회가 있다면 외국으로 이민을 갈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민을 떠나겠다는 비율은 여성(74.9%)이 남성(66.3%)보다 많았다. 연령대로는 20대(73.7%)에서 가장 많이 이민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30대(72.4%), 40대(62.8%), 50대(42.8%)가 이어 젊은층일수록 한국사회에 불안을 느끼거나 염세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는 2011년 잡코리아가 발표(성인남녀 932명 대상)한 결과 ▶▶7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만행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a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1 DAY ONLY 2/4(Sat) 9AM-4PM SUPER SALE

Wow! 하루세일 Really?

단 하루, 항공권 흥분할만!

특가항공권 가격이 궁금하시죠?  
IACE TRAVEL의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  
가장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http://www.iace-travel.com

IACE TRAVEL

문의전화  
1.617.424.8956  
1.866.619.4223



Dr. 동공통증병원

"동공" 참지 마세요  
해답은  
닥터스통증병원에서

Dr. Donggong, M.D.  
신경통증 전문의  
Chiropractic Specialist

617.731.1001  
617.566.1199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ealty.com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ealty.com



JEI 재능교육

JEI English JEI Reading & Writing  
JEI Math JEI Problem Solving Math

www.jelearning.com

JEI Burlington

11 Adams St. Burlington, MA 01803  
TEL: 781.362.9777  
EMAIL: Burlington@jelearning.com

# 월시 보스톤 시장 "이민자 보호 위해 시청사도 내주겠다"

트럼프 피난처 도시 지원 중단에 격분, 행정명령 서명하자 즉시 기자회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마틴 월시 시장이 25일 보스톤 시는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지막 방법으로 시청사라도 제공하겠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월시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피난처 시'에 대한 연방보조 중단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트럼프가 가장 파괴적이고 비미국적인 위협인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평가하고 "최근 행정명령과 대통령의 발언은 보스톤 사람들과 보스톤의 강점 그리고 보스톤 가치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월시 시장은 시청사를 이민자들의 피난처로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보스톤의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인 테두리 안의 모든 권한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시는 "우리는 결코 연방보조금 중단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1인치도 물러섬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만약 위협이나 두려움을 느낀다면 보스톤에서만만큼은 안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스톤은 2014년 트러스트 법안



마틴 월시 시장이 25일 보스톤 시는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지막 방법으로 시청사라도 제공하겠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을 통해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연방 정부(이민단속국)에 보고하지 않으며 결코 추방절차에 보스톤 경찰이 개입하지 않을 것을 규정했었다.

시장 출마를 선언한 티토 잭슨 시의원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민자를 리드하기 보다는 가족을 파괴하

고 커뮤니티를 갈라지게 하는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한 그는 "보스톤은 피난처 도시이며 계속 그러할 것이다. 우리는 이민자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 불법이민자, 이민자 사회 전체 불안

▶▶1면에 이어서

나 이들을 위해 이민자들을 감금하고 추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시들을 말한다.

연방 이민국은 과거부터 불법이민자들, 특히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의 구금을 위해 협력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일반적으로 이민국이 요구하는 것은 이렇다. 경찰이 범죄자를 체포하면 지문을 재취하고 이를 FBI와 ICE에 보내 이민신분을 조회한다. 이민단속국이 구금을 원하면 경찰은 법원이 보석을 허가한 후에도 최대 48시간동안 이들을 감금한다. 일반적으로 ICE 경찰인력이 모자라므로 즉각 추방대상 이민자를 데려가지 않아 이렇게 오랫동안 감금하게 된다.

그러나 '피난처 시'는 판사가 방면을 명령하면 바로 이민자를 석방한다. 이민법은 민사법이기 때문에 판사의 석방 명령이 있었음에도 이 법을 이유로 구속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에 근거를 둔 조치다. 특히 과거 이민단속국(ICE)는 진짜 범죄 불법이민자를 색출하기 보다는 법을 잘 준수하지만 교통위반 등 경미한 범죄를 이유로 붙잡힌 불법이민자들을 추방해 이 프로그램의 취지를 혼동케 했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시행한 시큐어 커뮤니티(Secure Community)프로그램이 바로 이것이다.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민사가 아닌 형사 범죄 이민자들만 선별해 추방하도록 했었다. 그러나 손 스파이서 대변인은 경찰이 단속할 대상을 형사범죄 이민자들에게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교통위반 등 경미한 위반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과거 분명하게 단속 대상을 규정했을 때도 일반 교통위반을 단속했던 경찰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불분명한 해석 하에서라면 집중적으로 이민자들을 단속할 가능성은 훨씬 높아졌다. 결국 불법이민자는 물론 이민자 사회 전체가 불안에 떨게 될 전망이다.

매사추세츠 주 중 이민자 '피난처 시'는 애머스트, 보스톤, 케임브리지, 햄든 카운티, 홀요크, 로렌스, 노스햄튼, 서머빌, 스프링필드, 등 9개 도시다. 그러나 첼시는 자칭 '피난처 시'라고 하고 있으며 스프링필드는 이 같은 분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알링턴은 현재 '피난처 시'가 되는 결의안을 진행 중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 말에 일부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들의 이민을 제한하는 이민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hsb@bostonkorea.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 부동산 전문인들 인맥 쌓기 모임, 아시아안 부동산 협회 갈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지역 부동산 관련 전문인들의 친목 및 교육 모임인 아시아안부동산협회(AREAA) 보스톤지부 갈라가 1월 20일 보스톤 다운타운 타지(TAJ)보스톤 호텔에서 개최됐다.

300여명의 부동산관련 전문가들, 지역 정치인들이 모여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자리였던 이번 갈라에는 보스톤 시장에 도전하는 티토 잭슨 시의원을 비롯, 태기 찬 주 하원의원 등 정치인들이 눈에 띠었다.

보스톤 시의회 의장인 미셸 우를 대신해 참가한 소피아 장과 티토 잭슨은 1월 20일을 보스톤아시아안부동산협회의 날로 지정해 관심을 표했다.

2017년 전국아시아안부동산협회 회장을 맡은 한국계 앤지 리씨는 이날 갈라에서 단연 돋보였다. 전문인들의 네트워킹 자리이며 호텔 특성상 좁은 볼룸공간이었던 탓에 유난히 연사의 연설과는 관계없이 자신들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관중들을 자신의 이야기에 끌어들이는 탁월한 연설 능력을 선보였다.

특히 앤지 리 회장은 지난 5년동안 아시아안어메리칸 커뮤니티에서 주택구입을 위해 발생한 모기지 금액이 무려 5천억달러(\$500 Billion)에 달한다고 밝혀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다. 특히 그는 “누구든지 자원봉사해서 자신의 역할에 헌신하면 임원 및 회장이 될 수 있다” 며 회원들을 독려했다.

현재 보스톤지부의 회원이 341명에 달해 미전역 이사회에서 1개의결좌석을 더해받았으며 내년에는 두배인 682명의 회원을 달성 하라고 격려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2017-8년 보스톤지부 임원 및 이사진의 임명식을 가졌다. 보스톤 지부 임원중 한국계로는 도널드 최(부회장), 헤더 김, 리치 김, 아일린 박, 피터 공 등 5명이 참여했다. 이사진에 한인들이 많이 진출한 것과 달리 이날 갈라에 한인 부동산 관련 참석자는 의외로 적어 한손에 꼽을 정도였다.

아시아안부동산협회는 부동산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원을 개방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아시아안부동산협회 갈라에서 보스톤지회를 이끌 회장단과 이사진을 앤지 리 회장이 임명하고 있다



아시아안부동산협회 전국 회장인 한국계 앤지리(사진 오른쪽)와 보스톤지부회장 덕리



타지 보스톤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안부동산협회 갈라의 모습 연회장이 좁아 상당수의 참가자가 선채로 갈라를 지켜보았다



티토잭슨 보스톤시의원(오른쪽에서 두번째)과 보스톤시의회장 미셸우의 보조관인 소피아장(오른쪽에서 세번째), 덕리 회장과 도널드 최 부회장에게 아시아안부동산협회의 날을 20일로 지정한 결의안을 전달했다



갈라에 참가한 주요 인사들, (좌측부터)레디 맘 주하원의원, 이경해 시민협회장, 도널드왕 주하원의원, 태기찬 주하원의원, 엘리사최 아시아안어메리칸위원회 회장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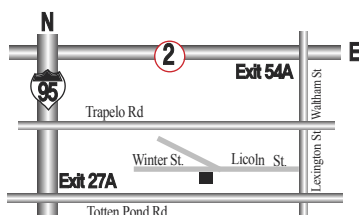
## SAT Plus Fall Schedule 2016

Saturday Class Start September 10, 2016

Class	Time	
PSAT / SAT prep	9:00 AM – 11:00 AM	11th Grade
SAT prep	11:30 AM – 1:00 PM	10th Grade
SAT prep	1:30 PM – 3:00 PM	9th Grade
SAT I prep	4:00 PM – 6:00 PM	12th Grade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 영화 <더킹> 무료 티켓 이벤트 당첨자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한새벽 기자 = 영화 <더킹>의 26일 보스턴 개봉에 맞춰 보스턴코리아가 실시한 무료 이벤트에 10명의 당선자가 선정됐다. 치열한 경쟁으로 예정보다 당첨자 2명이 더 추가된 결과다.  
1월 18일부터 23일까지 보스턴코리아닷컴에서 6일간 실시된 무료 영화 티켓 이벤트에는 총 42명의 독자가 참여하는 호응을 보였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당선자들은 3차에

걸쳐 선정된 작품을 다시 심사해 범위를 좁히며 선정됐다. 좋은 작품이었지만 너무 현재의 정국에 대해 기술하는데 치우치거나 자주 등장하는 다이어트 유머는 1차에서 선정됐지만 재심사에서 대부분 탈락했다.  
무료 티켓 교환권을 받게 될 당선자들은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n@hotmail.com)에 티켓을 받을 이메일 주소를 보내거나, 보스턴코리아 사무실(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에서

무료 티켓 교환권을 직접 픽업하면 된다. 이메일로 받은 티켓은 프린트 해서 가져가면 매표소에서 2장의 티켓으로 교환할 수 있다. 티켓은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평일 상영분의 영화만 무료 관람가능하다.  
더킹은 27일 금요일부터 AMC 로우스 보스턴 커먼에서 개봉한다. 당첨자와 당첨작은 다음과 같다.  
hsb@bostonkorea.com

<p><b>판지엄마</b> 더: 운 여름날, 보스턴에 처음 도착한 우: 리. 텅빈 집을 보니 한숨만 나왔다. 킹: 사이즈 침대를 사려고 이곳저곳 매장을 다니며 정: 신없이 찾아봤지만 결국 예산 초과로 좋은 침대를 포기하려던 차.. 우: 연히 보스턴코리아에서 좋은 중고품을 찾았고, 많은 정보도 얻었다! 성: 공적인 보스턴 정착, 보스턴코리아 없인 불가능했을거야! 고마워요 보스턴코리아!</p> <p><b>샘킴</b> 더: 딘 발걸음이 야속할지라도 킹: 을 잡는 조커와 같이 정: 말 생각지도 못한곳에서 우: 린 때때로 성: 공의 열쇠를 찾기도 한다. 힘내자 이시대 젊은 친구들이 ㅎㅎ</p>	<p><b>paulk0512</b> 더: 운 사막에서 병태와 그 친구 영자는 길을 헤매다 기적같이 요술램프를 발견한다. 킹: 공같은 지니가 나타난다. 무엇을 원하시나요? 병태가 말한다. 정: 말 집에 가고 싶어요. 평하더니 집이다. 우: 유가 마시고 싶어요. 평하더니 우유다. 갈증 해소했다. 성: 공이야. 짧은 외침후 마지막 소원을 말한다. 영자가 보고 싶어요. 평하더니 다시 사막이다.</p> <p><b>Daine118</b> 더: 더욱 보고싶은 조인성 킹: 카구경좀 하려고 조: 심스레 남편에게 말해보니 인: 상 팍쓰며 한다는 말, 보스턴 코리아에서 오행시 당첨 성: 공하면 보러 갈게!</p>	<p><b>Hyuneeda</b> 더: 킹 보여주는 사람 착한 사람! 킹: 왕짱 멋지고 사랑스러운 사람! 정: 신 못차리도록 조각같이 잘생긴 사람! 우: 랍한(*-_-*) 녀석까지 가진 완벽한 사람! 성: (姓)드립까지 쳤는데 관리자님이 여자면 어떨하지?...-0- ㄷㄷㄷ</p> <p><b>EstherK</b> 더: 더운계절 한 여름에 들려온 반가운 소식 "축하합니다, 임신입니다" 킹: 킹이자 엔젤같은 사랑스러운 너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찾아왔다. 조: 조그마한 공알같은 너가 이제는 초음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방긋웃으며 인: 인사를 건네는 모습에 엄마와 아빠는 무척 기뻐한다. 성: 성장하는 너를 매일 느낄수 있어서 엄마는 행복해. 사랑한다</p>	<p>3월달에 아들 출산예정인 임신부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영화 더 킹 이벤트에 당첨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p> <p><b>Hshs11</b> 더: 어렸던 그때 킹: 공의 여배우 옷이 찢어졌을 때 정: 말 이빠 보였지 우: 리 부모님 몰래 두근댔던 성: 장기 그 시절</p> <p><b>김근심</b> 더: 더 잘 살아 보겠다고... 킹: 킹대신 쿤을 뽑아놨더니. 정: 정의는 사라지고... 우: 우환만 가득하네... 성: 성호사서 (城狐社鼠) 로구나. (성호사서란 "성 안에 사는 여우와 사단에 사는 쥐, 곧 몸을 안전한 곳에 두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 임금 곁에 있는 나쁜 간신"을 의미하는 사자성어입니다.)</p>	<p><b>저스틴</b> 더: '더킹' 같은 영화를 통해서, 킹: 킹왕짱이라고 생각하는 고위 정치-경제인들이 조: 조금이라도 사회와 이웃들을 돌아봄으로 인: 인정과 신뢰를 국민으로부터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 성공한 개인을 위한 나라가 아닌,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서로를 위한 나라가 되어가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제 스스로 먼저 노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p> <p><b>후추추</b> 더: 킹... 재미있다고 소문난 영화 킹: 왕짱 보고싶었던 영화... 조: 만간 보러구 계획했었는데 인: 터넷 댓글당첨되면 볼수있더니!! 성: 공적으로 당첨되어서 보고싶어요</p>
--	---	---	--	--

##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구정 프로모션> 1월 29일까지**

지친 일상, 고된 살속에서  
**여러분을 버티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요?**

나를 버티게 하는 힘.

**EVENT 1**

홍삼추출액(30포) 구입시  
**10포 무료증정 3+1**

**EVENT 3**

홍삼본 골드 (\$183) 구입시  
**홍삼정 30g 무료증정**

**EVENT 2**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무료증정**

**보스턴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KGC Boston Brand Store**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전화 주문 **781-238-0303**

# 밀알한국학교 설날맞이 민속잔치 개최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체험하며 온가족이 함께한 정겨운 시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MA주 챔스포드에 위치한 밀알한국학교는 1월 22일 설날에 즈음하여 민속잔치를 펼쳤다. 지난 2015년 1월에 시작하여 올해로 세번째를 맞는 이번 민속잔치에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가해 더 다채로운 놀이를 즐겼다.

설빔을 곁에 차려입은 아이들이 어르신들과 부모님과 교사들의 지도하에 다소곳이 세배를 드렸다. 어린 유아반 아이들이 세배법을 모르고 머뭇거리자, 부모님이나 선배 학생들이 곁에서 시범을 보였다. 어르신들이 준비하신 세뱃돈과 사탕을 받아 쥘 아이들은 한번 더 세배를 하기도 하여 웃음을 자아냈다.

학생들은 각각의 놀이공간으로 흩어져 윷놀이, 제기차기, 팽이치기, 공주머니를 이용한 투호 놀이, 그리고 바둑을 이용한 알까기 놀이에 참여했다.

김현주 밀알한국학교 교장은 “이국 땅에서 바쁘게 생활하는 대부분의 한인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설날의 풍습을 모르고 지내는 것이 안타깝기 이 행사를 마련했다” 고 하며, “이 시간을 통하여 책으로만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실제로 체험하며 부모님과 함께 즐기게 하고, 또 부모님들께는 옛 추억을 되살리며 동심으로 돌아가 놀이에 참여하는 정겨운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이 행사의 목적” 이라고 밝혔다.

이날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놀이는 투호 놀



MA주 챔스포드에 위치한 밀알한국학교는 1월 22일 설날에 즈음하여 민속잔치를 펼쳤다

이와 알까기 놀이였는데, 투호 놀이는 연령층의 제한없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어 모두가 참여하였고, 알까기 놀이는 일대일 대전으로 옛날 구슬치기 놀이를 연상하게 하여 특히 아버지들의 참여도가 높았다고 놀이장들은 전했다.

한편 학부모회에서 가래떡으로 고소한 떡꼬치를 구워내어, 모두가 훈훈한 표정으로 우리의 전통스낵을 즐겼다. 끝으로 각각의 놀이에 열심히 참여한 아이들에게 상품이 주어졌고, 모든 놀이에 다 참여하여 스티커를 많이 모

은 다섯 가족에게도 특별상이 돌아갔다.

지난 주에 가을학기를 마친 밀알한국학교는 곧이어 교사회의와 학부모 PTA 를 거쳐, 오는 2월 19일에 2017년도 봄학기를 시작한다. 밀알한국학교는 한국어 교육에 관심을 갖고 교사로 일하실 분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등록을 원하는 학생이나 교사에 뜻이 있는 분은 김현주 교장 (678-516-4974, hkimpw@yahoo.com) 에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 보스톤 미술관과 한국 설날의 만남

보스톤 미술관 음력 설날 축제  
무료 입장, 다양한 행사와 볼거리 제공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소재 보스톤 미술관(Museum of Fine Arts Boston) 이 오는 2월4일(토) 올해로 네 번째 음력 설날 축제(Lunar New Year Celebration)를 개최한다. 한국, 중국 및 베트남 문화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아시아권 나라들의 전통적인 음력 설날 풍습을 소개한다. 미술관 전체가 무료로 개방되므로 설날 잔치와 미술관 관람을 병행할 수 있다.

올해 보스톤 미술관 설날잔치 한국 관련 행사는 한미예술협회와 뉴잉글랜드한국학교가 협력하여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www.mfa.org](http://www.mfa.org)의 스페셜 이벤트 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sb@bostonkorea.com](mailto:hsb@bostonkorea.com)

## 보스톤 한미 노인회 2월 소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 2월 1일 첫째 수요일 : 사랑방 모임  
교통편 : H-Mart 주차장에서 10시 30분 출발, 국제선 교회에 11시 도착
- 보스톤 한미 노인회 정기 이사회  
일시 : 2월 7일 화요일 오전 11시  
장소 : 뱃두운 차이나 부페  
Methuen China Buffet  
436 Broadway #10 Methuen MA01844  
(국제선 교회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출발)



**Frank Y. Shin, DMD**  
현 **Tofts** 치과대학 부교수



##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http://www.drfrankshin.com)

#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업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 입니다.



**업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교장 남일, 학부모회장 이미경)는 1월 21일 다채로운 민속놀이방과 세 곳의 세배방을 열어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들께 세배를 드리고 덕담을 듣는 설날 문화 및 예절배우기 행사를 개최했다

## 민속놀이방 및 세배방에서 전통과 예법을 배우며 설날 축하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설날잔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교장 남일, 학부모회장 이미경)는 21일 다채로운 민속놀이방과 세 곳의 세배방을 열어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들께 세배를 드리고 덕담을 듣는 설날 문화 및 예절배우기 행사를 개최했다.

학생들과 교사 및 학부모들도 예쁜 설빔으로 차려입고 자녀와 함께 손을 잡고 3곳에 마련된 세배방에서 세배를 드리는 예절교육을 배웠다. 또한 전통 민속놀이 방에서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놀이, 딱지치기, 팔씨름, 오자미던지기, 공기놀이, 활쏘기놀이 등 교과서를 통해 배웠던 민속놀이를 체험했다.

오전교육과정 및 오후특별교육과정 등 모두 50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서는 “각 과정별로 학기 중에 전통음식 만들기과 다양한 문화, 역사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교육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특별히 연례 설날잔치에는 전교생이 함께 민속놀이방과 세배방에서

참여하여 우리의 것을 잊지 않고 이어가 주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연례행사로 정해 전통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고 남일 교장은 전했다.

새해 첫 인사를 예법대로 드리며 세배 예절을 가르치는 세 곳의 세배방에서는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서 남녀 세배법을 각각 배운 후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새해인사를 드리고 덕담도 들으며 어른을 공경하는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예절을 배웠다.

이날 처음으로 세배방 행사에 참여한 미국인 할아버지는 “처음엔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있기가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았는데, 수백 명의 어린이들에게 세배를 받으며 ‘새해 복 많이 받으라!’ 한글로 덕담을 해 주는 동안 ‘정말 감동적이었고 무척 행복했다.’며 매년 이 행사에 초청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기초과정의 세배방을 딸과 함께 방문한 학부모도 “아이가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 두 손을 포개고 발을 내딛는 법, 앉고 일어서는 법 등을 차례로

배우며 어른께 다소곳이 세배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쁘고 감격스러웠다.”며 “한국전통과 문화체험이 부족한 우리 아이들이 옛날에 즐겁게 했던 전통놀이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전교생들은 학부모회에서 제공한 점심을 먹으며 반별로 종강식을 가졌고 교사회에서도 종무식 및 신년회를 가진 후 겨울방학을 시작했다.

이 지역 최대규모의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오는 2월 25일에 2017년도 봄학기가 시작되며 신입생 모집은 각 과정별로 약간 명만 받게 되는데, 재학생의 등록마감은 2월 11일, 신입생들의 봄학기 등록 마감일은 2월 18일까지이다. 등록문의는 남일 교장(508-523-5389, ksneusa@verizon.net) 또는 학교 홈페이지 www.ksneusa.org에서 등록안내를 받을 수 있다. 2세들의 뿌리교육을 위해 한글교육은 물론 문화교육 부문 교사로 동참하실 분은 위 연락처로 연락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 제1회 '옛날로 떠나는 역사 속 퀴즈여행' 본선 대회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1월 14일 제 1회 ‘옛날로 떠나는 역사 속 퀴즈여행’ 본선대회를 개최했다.

고대와 삼국시대를 범위로 정한 이번 대회에는 각 반에서 예선을 통과한 학생들의 본선대회와 각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참가하는 패자부활전 및 방정객 퀴즈 등의 순서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역사퀴즈 대회는 2세들의 역사교육 및 정체성 확립을 목적으로 한국의 역사를 연대별로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모두 4개 부분으로 나눠서 매년 1개부분씩을 범위로 정해 진행한다.

이번 행사의 준비를 맡은 초·중·고급 과정의 주민정, 김소희, 김영순 리더교사는 “오랜 한국역사를 2세들이 공부하기에는 범위가 넓어 이번 해부터 영역을 나누어 순차적으

로 교육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물론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학생들도 졸업하기 전까지 한국역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최소한 2회 이상 교육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참관한 한 학부모는 “어른들도 신속히 답을 내기 쉽지 않은 높은 난이도의 문제들을 어린 학생들이 잘 풀어내는 것을 보니 정말 놀랐다.”고 말했다.

남일 교장은 “2세들의 교육을 위해 늘 후원을 아끼지 않는 학부모회(회장 이미경)와 이사회 및 보스톤 총영사관, 재외동포재단의 격려와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하고 “한국학교에서의 역사/문화 교육 프로그램 자료들을 잘 정리하여 지역의 타 한국학교와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 역사퀴즈대회 수상자

참가부문	대상	금상
초급과정	김진아(백계1반) 이준호(백계1반)	배지훈(신라2반)
중급과정	이혜린(고려반)	이유나(한국반)
고급과정	황선윤(한라반)	정기려(금강반) 윤호원(백두반)
세종과정	해일리 크레이튼 (대나무)	신윤철(대나무)
참가부문	은상	동상
초급과정	송연(백계1반)	나예준(신라1반)
중급과정	서가은(조선반)	정동원(조선반)
고급과정		최에스더(한라반)
세종과정	영수진(소나무)	영수연, 신동준 캐시디 맥스 (겨울)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tsboston.net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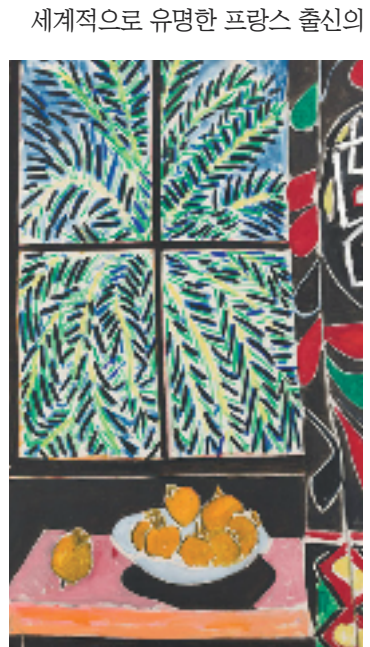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 올봄 MFA 찾는 '스튜디오의 마티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올봄, 앙리 마티스의 예술 작품과 함께 작품 속 묘사되었던 사물들이 보스톤을 찾아온다. 보스톤 미술관에서 4월부터 '스튜디오의 마티스' (Matisse in the Studio)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마티스의 개인 소장품들이 그의 예술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으며, 창작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볼 기회를 제공한다. 마티스의 스튜디오에서 사용되던 꽃병, 이집트 커튼, 은주전자를 포함한 35여 점의 개인 소장품들과 그 모습이 담긴 작품들 - 34개의 회화, 26개의 드로잉, 11개의 브론즈, 7개의 컷아웃, 4개의 프린트, 한 개의 삽화 책이 함께 전시된다. 이 외에도 니스와 베네치아 및 여러 도시에 있었던 마티스의 스튜디오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공개된다.



앙리 마티스, 이집트 커튼이 있는 인테리어, 1948, 캔버스에 유화, 필립스컬렉션 소장

화가 마티스는 자신에게 영감을 주는 사물들이 예술이 창조되는 과정의 일부라고 믿었다. 그는 사물들을 배우에 비유하면서 “좋은 배우는 10개의 다른 연극에 참여해서 각기 다른 연기를 한다. 사물들 또한 그림에서 10개의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다” 고 말한 바 있다.

마티스는 1869년 프랑스 북부에서 태어나 프랑스 니스에 정착하기 전까지 여러 곳을 떠돌며 작품 활동을 해왔다. 새로운 곳으로 이전할 때마다 개인 소장품을 가지고 다녔다고 한다. 대범한 색과 구도의 사용으로 현대 미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프랑스 문화에 국한되지 않았던 그의 광범위한 관심사는 이제껏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이번 전시는 마티스의 평생에 걸친 작품세계가 북아프리카 및 아시아 문화와 관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관람객들은 마티스를 기존과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술적 차용은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문화적 차이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질문들을 던진다” 고 엘렌 맥브린(Ellen McBreen) 큐레이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스튜디오의 마티스’ (Matisse in the Studio)는 마티스의 작품과 그에게 영감을 주었던 사물들을 함께 소개하는 최초의 전시로, 전시에 소개되는 대다수의 사물은 이제까지 프랑스 외부에서 공개적으로 전시된 적이 거의 없다. 전시는 4월 9일부터 7월 9일까지 진행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mfa.org 에서 확인할 수 있다.

sun@bostonkorea.com



##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 미국 출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영어명 ‘Human Acts’)』가 17일 미국에서 출간되었다. 『채식주의자』로 맨부커 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 문학전문가들의 찬사를 받은바 있는 한강은 그의 또 다른 장편 소설 『소년이 온다』의 출간과 더불어 미국 내 언론들의 잇따른 조명을 받고 있다.

13일 자 보스톤 글로브는 ‘광주민주화항쟁의 영혼에 사로잡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소설 내용과 그 배경을 상세히 전했다.

『소년이 온다』의 이야기가 1980년 광주에서 벌어졌던 학생 운동에 대한 정부의 잔인한 억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고 소개한 보스톤 글로브는 이 사건이 1970년, 미국 켄트 주립대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과 유사점이 있다고 하면서도 “학살의 규모와 억압은 그러한 비교를 불쾌하게 만들 정도”라며 참상의 정도가 훨씬 심각함을 강조했다. (켄트 주립대학교 총기 난사 사건은 1970년 5월 미국 오하이오 켄트주립대에서 베트남전 반대 시위를 하던 학생들에게 무장한 주 방위군이 총격을 퍼부어 4명이 죽고 9명이 다친 사건을 말한다).

무고한 젊은이들의 희생 이후의 삶을 ‘유령’에 비유하고 있는 이리뷰는 ‘유령’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첫 번째는 학

살당한 학생들의 영혼. 두 번째는 살아남은 ‘유령’들로, 군인의 총알에서 살아남았지만, 외상과 죄책감을 떨쳐낼 수 없어 기억에 족쇄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소설의 주인공인 중학교 3학년생 동호를 비롯한 주변 인물들은 바로 이 두 번째 유령에 속한다. 친구를 버리고 도망쳐 혼자 살아남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동호는 결국 주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도청에 남아 시체터미를 지키는 선택을 한다. 살아남으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살아남아 영혼이 부서진 은숙, 고문을 받고 풀려났지만 부서진 영혼을 되살릴 수 없었던 진수의 이야기가 얽히고설켜 전개된다.

보스톤 글로브는 “한강은 이전 소설 채식주의자에서 광주 학생 대학살에 대해 스치듯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광주에서의 이 잔학한 사건은 분명히 이 작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며 이 사건이 한강의 작품세계 전반에 미친 영향력에 대해 주목했다.

그에 앞서 10일 자 뉴욕타임스 역시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비중 있게 다루며 상세한 리뷰를 실었다.

뉴욕타임스는 소설의 줄거리와 더불어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하며 박정희로부터 전두환까지 이어진 군사정권을 소개했다.

또한, 한국의 인사말 ‘안녕하세요’가 ‘당신은 평안합니까’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강대국에 둘러싸여 숭한 침략과 전쟁, 식민통치, 군사정권 등을 겪어야 했던 한국의 고된 역사가 인사말에 반영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인간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강의 소설이 던지고 있다고 해석한 이리뷰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당신은 평안합니까” 대신 “당신은 평화를 실천하고 있습니까”라고 해야 한다고, 평화는 수동성이 아닌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의견도 함께 전했다. 이는 『소년이 온다』의 영문 제목 ‘Human Acts’에 대한 해석이기도 하다.

한강은 1970년 광주 출생으로, 광주항쟁 발생 4개월 전 가족을 따라서 울로 이사했다. 광주에 있는 친지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날의 사건을 접했고, 13살 때 아버지 한승원이 가지고 있던 당시 학살의 흔적이 담긴 사진들을 우연히 발견하게 된다. 이후 간접 경험한 폭력을 문학으로 풀어내는 작업에 천착해 왔다.

광주 5.18에 대한 기억을 예술로 승화시킨 한강의 여섯 번째 장편 소설 『소년이 온다』의 영문판은 지난해 초 영국에서 출간된 바 있으며, 미국에서는 호가스(Hogarth) 출판으로 이달 17일 미 전역 서점에서 일제히 판매된다.

sun@bostonkorea.com

**광어,우럭 사시미에 한잔 생각하시면 오빠 스시로 오세요**

185 Harvard Ave. Allston  
**617 202 3808**

**BLESSING CHANNELS 네일 아카데미**  
 BCNAILSCHOOL.COM

**지금! 자격증에 도전하세요**  
 네일 아카데미는 핵심적인 네일아트 디자인과 프렌치네일 만드는 전문 학교입니다.

전문 수강생 특별할인 가격 (10% 할인) | **MA Best Nail School**  
 \*성업 중인 많은 네일 샵에서 본 학원 출신의 네일 테크니션을 항상 찾고 계십니다.\*

**CATHERINE'S ART CLASS**  
 www.bostonkoreain.com

주말 미술교실을 위한 열거할 수 없는 혜택과 수업을 위한 재료 납품과 교구를 배려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예술을 통해 삶의 활력을 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드로잉, 수채화, 유화, 포스터제작, 조각  
 학생 및 성인반 개설  
 수업 시간: 화요일(10:00-12:00) 수요일(10:00-12:00)  
 (단체 수업과 개인 수업도 가능함) | **781.729.8868**

**현금 대출**

- 비즈니스 오너를 위한 현금대출
- 은행 잔고 증명 불필요
- 신용조회 불필요
- 24시간내 승인

자세한 내용은 지금 전화하세요!  
**617.834.8183**

# 마틴 루터 킹과 보스톤의 연결고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9년 전, 마틴 루터 킹이 한 때 부목사로 재직했던 록스베리의 열두번째 침례교회(Twelfth Baptist Church) 앞에서 당시 시장이었던 톰 매니노(Tom Menino)는 “바로 이 자리에 마틴 루터 킹 박사와 그의 아내 코레타의 동상을 세우겠다” 고 약속했다. 우리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지난 수년 동안 정치인을 비롯한 옹호론자들이 마틴 루터 킹을 기리기 위한 기념물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해 왔었다. 마침내 현실화가 되어 가는듯 했던 이 프로젝트는 경기침체를 비롯한 여러 장애물에 부딪혀 탄력을 잃고 말았다. 보스톤에는 여전히 마틴 루터 킹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없으며, 이에 대한 계획조차 없다.

매년 1월 셋째 주 월요일은 마틴 루터 킹의 날이다. 보스톤 글로브는 14일 칼럼을 통해 오랜 기간 담보상태에 머문 마틴 루터 킹 기념비의 필요성에 대해 촉구하며, 보스톤과 마틴 루터 킹의 깊은 인연을 강조했다.

마틴 루터 킹은 1950년대 초반 보스톤 대학의 신학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보스톤 대학은 여전히 마틴 루터 킹의 논문을 보유하고 있다. 당시 그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들에게 상당히 포용적이었던 지적 커뮤니티에 속해 있었으며 하워드 서먼(Howard Thurman)이라는 멘토가 있었다. 서먼은 보스톤 대학의 마쉬 채플(Marsh Chapel)의 학장으로서 1930년대에 마하트마 간디를 방문

한 적이 있다. BU의 월터 플루커(Walter Fluker) 교수에 따르면 간디의 비폭력 저항 철학을 마틴 루터 킹에게 전달한 사람이 바로 서먼이다.

마틴 루터 킹이 보스톤에서 경험한 인종 차별에 대한 일화도 전해진다. 마틴 루터 킹이 방을 구하고 있었을 때 임대 중이라는 사인이 걸린 방을 찾았지만 “흑인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 방은 더이상 임대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 는 것이다.

그가 아내 코레타 스콧(Coretta Scott)을 만난 곳도 보스톤이다. 열두번째 침례교회의 부목사로 재직하던 중, 당시 뉴잉글랜드 컨서바토리의 학생이던 코레타를 만났다.

이후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 교회에 부임하였고, 유명한 버스 보이콧 운동을 비롯한 비폭력 평화 시위로 범국민적 지지를 얻었다. 그 뿐만 아니라, 흑인 해방 운동 및 흑인 인권 운동을 주도하며 1964년 최연소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다.

1965년 4월, 마틴 루터 킹은 보스톤으로 돌아왔다. 사우스엔드에서 보스톤 코먼에 이르는 1마일의 거리를 행진하는 인권 행진을 이끌었다. 록스베리의 허물어져가는 주택과 학교들을 방문했으며, 주의회에 학교 격리를 끝낼 것을 촉구했다.

글로벌에 따르면 마틴 루터 킹은 “앨라배마 주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일 중의 일부가 보스톤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며 “이것은 흑인과 백인들의 싸움이 아니라

정의와 불의의 세력 사이의 투쟁이다” 라고 국회의원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행진 이후 마틴 루터 킹은 추운 이슬비를 맞으며 파크맨 밴드 스탠드의 2만2천명의 군중 앞에서 도시를 가르며 인종적 분열에 대해 연설했다.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약속을 현실화 할 때가 왔다. 지금이 그때다. 형제애를 실현할 때다... 새로운 보스톤에 대한 비전은 록스베리의 심장부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보스톤은 자유의 이상을 위한 시험장이 되어야 한다.”

마틴 루터 킹의 이러한 업적을 기리는 표시가 보스톤에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대로’(Martin Luther King Jr. Boulevard)와 보스톤 대학의 추상 조각 작품 ‘마침내 자유’(Free At Last)가 그것이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 박물관의 교육 디렉터이자 예술가인 메르치 프레이저(L'Merchie Frazier)는 “그가 누구였는지, 어떤 이상을 가졌었는지를 조명할 초상화가 필요하다” 고 말한다.

보스톤시의 예술 문화부의 수석 줄리 부로스(Julie Burros)는 공동체가 원한다면 마틴 루터 킹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개방적” 이라고 밝혔다.

sun@bostonkorea.com

# 웨스트보로 아파트 침대 밑에 현금 1천7백50만달러 숨겨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침대 밑에 현금을 숨긴다면 얼마나 들어갈까? 연방 수사국은 지난 1월초 보스톤 서쪽에 위치한 웨스트보로 아파트에서 약 2천만불 현금을 침대 및 박스프링에서 발견해 압수했다.

이 사건은 매사추세츠 미연방지검 검사 가 박스프링에 담긴 2천만불의 현금을 23일 트윗하면서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다.

이번 사건은 연방 수사국이 세계적인 30억달러에 달하는 폰지사기인 텔렉스프리 사건에 관계된 브라질인 한 명을 입국 시부터 쫓다가 돈세탁을 통해 브라질로 송금하려던 그를 1월 5일 체포하면서 알려졌다.

미연방 검사 카르멘 오티즈는 성명서를 통해 클레버 리네 로카(28)를 돈세탁 공모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연방검찰청은 2014년 말보로 소재 텔렉스프리 본사를 급습해 이회사 공동창시자인 카를로스 웬즐러와 제임스 메릴을 피라미드 사기 혐의로 체포 기소했었다. 브라질 태생인 카를로스 웬즐러는 브라질로 도피해 잡히지 않았고 제임스 메릴은 2016년 10월 유죄를 인정해 우스터 법정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연방 검찰청에 따르면, 웬즐러는 과거

웬즐러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을 접촉해 보스톤 지역에 숨겨둔 수백만달러의 현금을 브라질로 전달해주길 원했다. 그러나 이 직원은 2015년부터 연방 검찰청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직원은 웬즐러의 조카인 로카와 돈을 홍콩 경유 브라질로 보내기로 약속을 잡았다. 로카는 브라질에서 뉴욕으로 비행기로 12월 31일 입국했다. 세관에게 그는 뉴욕에서 1주일간 신혼여행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후 다시 매사추세츠로 이동해 1월 4일 허드슨 소재 한 장소에서 연방 검사 정보원이 된 직원과 만났다. 정보원은 여기서 로카에게 2백20만달러 가 든 가방을 전달했다.

잠복하던 연방 검찰은 로카를 미행해 웨스트보로까지 따라갔으며 결국 내티 쇼핑몰에서 그를 체포했다. 검찰은 웨스트보로 아파트 단지를 집중 수색한 결과 침대 및 박스프링에서 약 2천만달러에 가까운 현금을 발견했다.

텔렉스프리는 말보로와 브라질에 본사를 둔 회사로 사상 최대규모의 피해자를 유발한 폰지(Ponzi)사기를 벌였다. 인터넷 전화서비스를 판매하던 이 회사는 피라미드 식 투자 사기로 전세계 1백만명에게 180억 달러규모의 사기를 벌였다.

hsb@bostonkorea.com



연방 법무부 소속 검찰이 트윗한 2천여만달러 현금 사진

Grace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 은혜한의원에서

회복을 도와드립니다.

- 요통, 어깨, 목, 허리 통증 등 만성 질환
- 두통, 편두통, 어지럼증, 메스꺼움, 집중력 저하
- 비염, 천식, 알레르기, 각종 스포츠 부상
- 만성 관절염, 비만, 근육통
- 요통, 어깨, 목, 허리 통증 등 만성 질환
- 두통, 편두통, 어지럼증, 메스꺼움, 집중력 저하
- 비염, 천식, 알레르기, 각종 스포츠 부상
- 만성 관절염, 비만, 근육통
- 요통, 어깨, 목, 허리 통증 등 만성 질환
- 두통, 편두통, 어지럼증, 메스꺼움, 집중력 저하
- 비염, 천식, 알레르기, 각종 스포츠 부상
- 만성 관절염, 비만, 근육통

781.862.1842

www.graceaom.com

442 Ma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01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압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스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9

GB Family Physical Therapy

## 가족 물리치료 병원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고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http://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 학업 지도 튜터링

####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mailto: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 MA 공립 대학교서 노숙, 굶는 학생 늘어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노숙자 학생 보고돼  
가정에서 지원 못 받아 경제적인 문제 겪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의 공립 대학교(2년제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들 중 배고픔과 주택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인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

지난 24일, 매사추세츠 주에 위치한 29개 공립 대학교의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중 45%의 대학교에서 지난 1년 사이 노숙자 학생이 증가하였으며, 38%의 대학교에서 끼니를 정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34%의 대학교에서 지역이나 학교의 도움으로 식료품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들이 늘었다.

노스쇼어 커뮤니티 칼리지의 패트리샤 젠타일 총장은 “아주 슬직한 심정으로, 학생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럼에도 이런 학생들은 도전하고, 여전히 학교에 나오고,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 말했다

. 덴버스에 위치한 노스쇼어 커뮤니티 칼리지 재학생들은 굶주림을 겪는 학생들의 비율이 다른 학교보다 높은 수준이다.

매사추세츠 고등교육 위원회는 이번 설문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고등교육 위원회는 다음 단계로 교직원이 아닌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할 계획이다.

고등교육 위원회 소속 의원이자 하버드 교육 대학원 교수인 페르난도 레이머스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 며 “이들은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고 말했다.

대부분의 공립 대학교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집이 없는 학생들이 있다고 보고했다. 이런 학생들은 노숙자를 위한 쉼터, 자동차, 24시간 영업장(던킨 도너츠나 맥도날드) 등을 전전하고 있으며, 날씨가 춥지 않을 때에는 밖에서 잠을 자고 있다.

매사추세츠 공립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약 29만 명이며, 이중 집이 없거나 노숙자가 될 위험에 놓인 학생들은 1,020명이라고 보고되었다. 학교 관계자들은 배고픔과 추위에 떠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것은 등록금으로 인한 부채 증가, 생활비 증가, 재정 지원 부족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가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jsi@bostonkorea.com



노숙자 쉼터를 전전하며 학업을 이어가는 대학생들이 있다



## 매사추세츠 주 세금 보고 시즌 시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의 세금 보고 시즌이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매사추세츠 재무부는 23일부터 매사추세츠 주의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올해 매사추세츠 주 세금 보고 마감일은 4월 18일이다. 통상적으로 4월 15일이 세금 보고 마지막 날이지만 올해는 4월 15일이 토요일이고 4월 17일이 패트리어츠 데이로 공휴일이라 4월 18일까지 세금 보고 접수를 받는다.

마이클 허퍼너 주 재무부 장관은 올해 세금 보고 시즌 최고의 우

선 순위는 납세자들을 사기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여 거짓으로 작성된 세금 보고를 신속하게 적발하고, 동시에 적법한 세금 환급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매사추세츠는 연방 국세청, 세금 보고 소프트웨어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에 따라 승인된 세금 보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연방 세금 보고와 주 세금 보고를 모두 온라인 상에서 무료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jsi@bostonkorea.com



# 서울설렁탕

##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더 나은 봄, 서울설렁탕의 미진, 특별 보쌈, 두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집밥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r Deacon's Hill  
158 Cambridge St, Boston  
617.572.8888  
SeoulFoodMarket.com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 가족들에게 엔티비를 선물하세요!

#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 합법적인 엔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NEWS CHANNEL, MBC, SBS, KBS, EBS, OCN

# 보스톤 17만 5천명 트럼프 반대 시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10만명이 넘는 보스톤 시민들이 도널드 트럼프 취임식 바로 다음 날인 21일 대통령 취임에 항의하는 시위를 가졌다.

군중들은 보스톤 커먼에 모여 약 한 시간 동안 트럼프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연설을 들은 후 보스톤커먼을 나서서 찰스 스트리트를 통해 클라렌드 스트리트까지 행진한 후 다시 돌아왔다. 보스톤 커먼에는 너무 많은 군중이 모여 이 군중들이 거리로 행진을 위해 빠져나가는 데만 무려 1시간 반이 걸릴 정도였다. 경찰은 이날 군중을 약 17만5천여명으로 추산했다.

보스톤 글로브와 인터뷰한 92세 시드니 토폴 할버니는 "그동안 스포츠 퍼레이드는 보아왔지만 평생 이런 시위군중을 본 적이 없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 평화적이며, 시끄럽지 않고, 아주 우호적이며 사랑이 넘친다"고 표현했다.

시위대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어졌으며 이들은 드럼을 치기도 하고 사인보드를 흔들었으며 "여성이 뭉치면 결코 지지 않는다"며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시위대는 남녀가 반반 정도였

다. 보스톤에서 열린 '여성행진' 시위는 미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열린 600여 시위 중 하나였다. 이날 시위에는 엘리자베스 워렌 연방상원의원, 마틴 월시 보스톤시장, 에드워드 마키 연방상원의원, 모라 힐리 검찰총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연상에서 정치인들은 인권을 존중하고, 경제적 기회 균등, 다양성 존중, 최저임금인상, 노조활동 보장, 기후변화 대처, 이민자 추방금지, 동성애 보호 등을 외쳤다.

워렌 상원의원은 "우리는 이민자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결코 담을 쌓아 수백만의 가정을 갈라 놓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힐리 검찰총장은 "매사추세츠 주민들의 메시지는 '법정에서 만나자'이다"라고 외쳤다. 트럼프가 내리는 일련의 조치에 대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위군중들이 보스톤을 향하면서 지하철과 커뮤터레일은 많은 혼잡과 연착을 거듭했다. MBTA측은 빨리 배차를 늘려 이를 대비기도 했다.

hsb@bostonkorea.com



지난 21일 보스톤에서 열린 '여성행진' 시위에 참가한 시위군중들이 비컨스트리트로 향하고 있다

## 거리로 나온 17만 시민들의 말, 말, 말

보스톤 커먼 17만 5천명 모여, 남녀노소 인종불문 한데 모여  
반 여성차별, 반 트럼프, 반 인종차별 등 각양각색의 목소리 나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우리가 중요한 문제에 침묵으로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죽어가기 시작한다". 마크 맥도널드 씨는 마틴 루터킹의 명언으로 자신이 시위에 참여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시민들의 참여 없이 나온 세상을 만들 수 없다"며 "시민들의 참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바로 다음날인 21일 보스톤 커먼에서는 '여성 행진(Women's March)'이란 이름으로 대규모 반 트럼프 시위가 열렸다. 행사에는 유모차를 밀고 있는 남성부터, 임산부, 부모 손을 잡고 나온 아이들, 지팡이를 짚고 나온 노인들 등 남녀노소와 인종을 불문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참여했다. 시 당국이 공식 집계한 시위 인원은 약 17만 5천명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반 여성차별, 반 인종차별, 이민자 단속 반대 등의 주제가 한데 어우러지며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에 분노를 표했다. 중년의 맥도널드 씨도 이 시위 군중에 섞여 트럼프에 반대의견을 표했다. 여성 행진 참여자들은 각기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에 대해 피켓을 만들어 참여했으며, 어떤 집회 참가자들은 LGBT(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목에 두르고 성조기를 들고 나온 남성 커플 함께 사진을 찍는 등 집회는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트럼프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21일 보스톤 커먼에 모인 약 17만 명의 집회 참석자들은 각기 반 여성차별, 반 트럼프, 반 인종차별 및 반 성소수자 차별 등 다양한 피켓을 들고 집회에 참석했다

온 케일 홀리데이 씨는 "트럼프는 결코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다. 그는 러시아의 도움 없이는 결코 합법적인 대통령이 될 수 없었다."며 러시아의 해킹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전 11시부터 불어나기 시작한 군중들은 정오가 지나자 보스톤 커먼을 가득 메웠다. 참가자들은 보스톤 커먼의 주변을 돌며 행진을 한 뒤 보스톤 커먼 중앙에 설치된 무대에 모였지만 몇몇 이들은 자신들끼리 커먼 주변을 계속 돌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또 한 명의 참가자인 사회인 세라 던칸 씨는 '이것이 미국의 본모습'이라며 감격해 했다. 던칸씨는 한국의 정치 문제에 대해서 신문을 통해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의 시민들은 불의에 대항할 권리가

있다. 미국의 시민들도 한국의 시민들도 쉽지 않은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지만 결코 긍정적인 희망을 버리지 말라"며 한국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냈다.

보스톤 행사는 세계적으로 개최되는 600여개의 행진 중 하나였다. 미국에서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가 제 45대 미합중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다음날 진행되어 여성의 목소리 뿐만 아니라 트럼프에 반대하는 시위대, LGBT 그룹, 반 이슬람혐오 및 인종차별 반대 시위자들까지 합쳐져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행사에는 엘리자베스 워렌과 에드워드 마키 매사추세츠 연방 상원의원, 마틴 월시 보스톤 시장,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주 검찰총장 등이 참석했다.

itshunne@bostonkorea.com

##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폰도 오픈 하우스**  
(1월 20일 일요일 11시~12시 30분)

**Townhouse In Acton**

1,300 SF (finished basement not included),  
2 Beds, 4 Baths, 1 Garage,  
1 Office space, Loft, Open plan

**ASKING: \$525,000**



집을 사고 팔면 언제든 **송진(GINA)**과 **송원(PETER)**을 찾아 주세요.

TEL) 978.866.3248(최송진), 617.780.7839(주송원)  
e-mail) thepeterginateam@gmail.com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 미국판 만리장성 '트럼프 장벽'에 최대 46조원 든다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지시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국판 신(新) 만리장성 프로젝트가 현실화하게 됐다. 건설 비용이나 재정 마련 방안 등에 대한 백악관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지만 미 언론들은 제각각 계산기를 두드리며 '트럼프 장성'에 들 비용을 전망해 보고 있다.

◇장벽 건설 비용 최대 46조원  
미국-멕시코 국경은 2000 마일(3218km)에 달한다. 이 중 이미 나무 울타리나 철조망이 있는 1049km를 제외한 곳에 새 장벽을 만든다는 것이 이번 행정명령의 골자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관련 기사에서 1000마일(1609km)에 콘크리트 장벽을 설치하는 데 최소 300억달러에서 400억달러(46조2920억원)까지 든다고 밝혔다. 건설 컨설팅 업체 글리즈 윌드와이드는 1000마일 장벽 건설은 310억달러(35조 9352억원)가 들며 최대 4만명의 인부가 투입돼 향후 5년간 완공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장벽뿐만 아니라 이를 유지하기 위해 고정력이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도 시간과 비용이 추가된다. 12m의 콘크리트 벽을 위해선 최소 땅을 3m 이상 파야한다. 텍사스 소재 콘크리트 전문 시공 업체는 기반을 만드는 데만 총 260억 달러(30조716억원)가 든다고 추정한다.

여기에 도로 위에서 작업이 이뤄지거나 펜스 층이 높아지고 수리 비용까지 더해지면 설치비용은 훨씬 커진다.

트럼프는 대선 경선에서 국경 설치 비용으로 최대 100억달러(11조5920억

원)를 추산했으나 이것으론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국경의 필요 여부나 비용 처리 방식 문제를 떠나, 도널드 트럼프가 주장한 것과 같은 비용으론 건설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미 연방재정으로 비용 처리할듯  
현재 백악관은 지난 2006년 책정된 국경장벽설치법(Secure Fence Act) 예산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국경장벽설치법은 미국-멕시코 국경 3218km 중 35%인 약 1126km에 '가시적인 펜스'를 설치한다는 것이 골자. 지금까지 설치된 펜스는 약 58km에 달한다.

그러나 국경 전체에 장벽 건설을 완성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위해선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해 상원에서 예산이 추가로 책정돼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국토안보부 존 켈리 장관에 연방 재정을 모두 끌어모을 것을 지시하면서 남북 국경에 물리적 장벽을 계획하고 건설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장벽 건설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겠다"고 공언했으나 멕시코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멕시코의 재정 지원을 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만리장성보다 훨씬 높은 장벽?

행정명령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트럼프 장벽'은 '물리적 벽'이나 통행을

막는 '물리적 장애물'(barrier)이다. 철골로 만들어진 조립식 콘크리트 판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뭐가 되었던 장벽을 운반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장벽 높이를 10~12m로 예상하면서 "관광하기 좋은 장벽"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만리장성 높이가 6~9m인 점과 비교하면 그보다 최대 2배 이상 높을 수 있다. 장벽 폭은 3m로 예측된다.

◇법적 분쟁 가능성 다분

그러나 장벽을 만들 돈이 충분하다 해도 지리적 환경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 일례로 리오그란데강 등이 인접한 국경 지대는 장벽이 자칫 침수되거나 수류(水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적으로 장벽 건설 자체가 불법이다.

또 민간이 소유한 토지의 경우 미 정부가 나서서 설치물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장벽 건설을 추진하는 데 법적 다툼의 '장벽'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

yjw@news1.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긍정(%)	부정(%)	의견없음(%)
도널드 트럼프	45	45	10
버락 오바마	68	12	21
조지 W 부시	57	25	18
빌 클린턴	58	20	22
조지 H.W 부시	51	6	43
로널드 레이건	51	13	36
지미 카터	66	8	26
리처드 닉슨	59	5	36
존 F 케네디	72	6	22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68	7	25

갤럽은 지난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를 조사했다

## 트럼프, 취임 뒤 첫 지지율 조사 45% 53년 이후 최저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긍정평가)가 45%로 집계됐다. 취임 사흘을 놓고 진행되는 동일 조사가 시작된 1953년 이후 최저다. 반면, 부정평가는 최고치를 나타냈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22일 발표한 국정지지도 조사에서 트럼프는 45%를 받았다. 동일 조사가 시작된 1953년 이후 가장 낮다.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에 68%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긍정평가와 같은 45%였다. 남은 10%는 '의견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평가는 정치성향에 따라 크게 갈렸다. 공화당 성향의 응답자는 90%가 긍정적으로 봤다. 반면, 민주당은 81%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무소속은 긍정이 40%, 부정이 44%였다.

인종별로는 백인의 지지가 높

았다. 긍정평가는 백인에선 56%가 나온 반면 비백인은 22%에 불과했다. 성별 지지도는 남성이 48%, 여성이 42%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전에도 역대 최저 지지율을 받았다. 이들 조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에 여론조사가 "조작됐다"고 비판했다.

첫 지지율 조사에서 긍정평가가 50%를 밀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다.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하고 역대 최저 지지율은 로널드 레이건(1981년)과 조지 H.W 부시 대통령(1989년)이 받은 51%였다.

하지만 갤럽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전 두 대통령의 조사 결과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시와 레이건 대통령의 경우, 부정평가가 15%를 밀돌았으며 상당수는 '의견없음'을 택했다고 갤럽은 설명했다.

allday33@news1.kr

**골프 레슨**

**US GTF 최성조 프로**  
Master Golf Professional  
aj.usgtr@gmail.com

**857.600.6755**

**HAPPY 해피동상**

이웃을 위한 따뜻한 선물  
기념품, 생일선물, 결혼선물, 축의금, 인사품, 선물세트, 기념품, 생일선물, 결혼선물, 축의금, 인사품, 선물세트

문의 617.248.3131 Happydongsang@gmail.com

**Century 21**

주백 | 콘도 | 커머셜  
성실한 도와드리겠습니다

**Eileen Park (아일린 박) REALTOR®**

WWW.BOSTONPARKREALTY.COM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1274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youngdentistrypc.com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 美 'TPP 탈퇴'는 누구에게 득?

(서울=뉴스1) 김윤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위한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한 것에 대해 CNN이 "미국엔 나쁘고 중국엔 좋은 일"이라고 보도했다.

CNN은 피터스경제연구소의 '페트리-플러머' 보고서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보고서를 인용해, TPP가 폐기될 경우 미국의 대다수 노동자들과 소비자, 사업가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선 당연하지만 TPP로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이점이 없어진다.

페트리-플러머 보고서에 따르면 TPP가 완전히 이행될 경우 사업가는 연간 0.4%, 근로자는 연간 0.5%의 추가 수입을 얻게 되는 걸로 추정됐다. 자유로운 노동력 교환을 통해 비숙련 노동자도 숙련 노동자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높은 생산성과 낮은 가격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좋은 품질과 서비스, 글로벌 경쟁을 통한 경제 성장도 자유무역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다.

TPP가 폐기되면 중국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중국은 TPP에 대해 자국 주도의 무역협정인 역내포

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추진해왔다. 한국, 일본을 포함해 아태 지역 15개국이 참가해 2012년부터 협상을 진행했다.

그동안 TPP에 가려 주목을 덜받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TPP 폐기에 시동을 걸면서 중국 주도의 RCEP가 전 세계 자유무역의 중추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7일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해 세계화의 이점과 보호무역의 폐해에 대해 연설하며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이끌 것을 천명했다.

CNN은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의해 세계 시장 질서가 재편될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은 RCEP에서 미국이 배제되면서 미국으로 향하던 교역이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세계화의 문제점은 이를 중단함으로써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오히려 1930년대 미국을 강타한 대공황이 보호무역 때문이었다는 점을 역설했다. 또 세계화에 따른 비용은 자유무역을 중단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yjyj@news1.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들어 보이고 있다

# "연준, 올 2H 금리 인상 가속도... 내년 3회 아니라 4회"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지난해 4분기 귀금속 가격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했던 BNP파리바는 내년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분기마다 금리를 올려 총 4회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준은 가장 최근 점도표에서 올해와 내년의 금리 인상을 각각 3회로 예상하고 있다.

BNP파리바는 25일 보고서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재정 확대 정책을 감안해 올해 하반기 금리 인상에 속도가 붙어 내년에는 분기마다 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트럼프의 정책으로 내년 임금이 올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높아질 것이라고 BNP파리바는 내다봤다.

BNP파리바의 원자재 전략가들은 "금이 올해 상반기 오르는 인플레이션의 지지기반을 찾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연준이 하반기 금리를 올려 달러 강세가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8년 BNP파리바는 연준이 분기마다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미 경제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며 트럼프가 성장을 가속화할 정책을 밀어 붙일 의지를 불태우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연준의 다음 금리 인상의 단초를 찾는 데 분주하다.

BNP파리바는 "현재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곡선에 뒤쳐있지 않다'며 자원/설비비용이 아직 타이트하지 않다"며 "이는 금리가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오를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 사이 인플레이션은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올해 첫 회의를 갖고 금리를 결정한다.

연말로 갈수록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감이 금값의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결국 금값의 최저저항선이 다시 떨어지고 있다고 BNP파리바는 해석했다. 금값은 트럼프의 깜짝 당선 이후 떨어졌다가 트럼프 랠리가 주춤하면서 이달 들어 반등하는 모습이다.

kirimi99@news1.kr

# 브라질 '최악의 황열병 사태'...두달간 최소 40명 사망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브라질에서 지난 2003년 이래 최악의 황열병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25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브라질 보건당국이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개월간 70명이 확진 진단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40명이 사망했다. 이 밖에 47

건의 사망 사례와 368명의 감염의심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브라질 농촌 지역에서 주로 발병하던 황열병은 최근 도시 지역까지 빠르게 퍼지고 있다. 저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온 이스피리투산투주에서도 최근 22건의 감염 사례가 발견됐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미나스제라이스 주는 180

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브라질 정부는 황열병 확산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충분한 백신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약 550만 도스(1인 1회 접종량)의 예방접종 백신이 배포됐으며 보건당국은 1150만 도스를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황열병은 발열과 통증, 구토 등을 동반하며 심할 경우 신장 및 간

의 부전과 출혈로 사망할 수 있다. 현재는 예방접종 외에 치료 방법이 없다.

soho0901@news1.kr



##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학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 레스토랑 창업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 ☑ 치킨 관련 전문업체
- ☑ 소스 공급 및 요리 기술 전수
- ☑ 영업 노하우 전수

치킨 가게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 20년 경력의 파방돌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스턴에서 레스토랑 운영중이므로 인제돈 맛과 실습 가능.  
 주방기술자/피플에 마음고생하시는 분, 더 이상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파방돌로 연락주세요.  
 검증된 노하우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치킨 메뉴를 추가하고 싶으신 분**  
**식당을 준비하시는 분**  
**새로운 메뉴를 추가하고 싶으신 분**



모든 제품은 한국 파방돌공장에서 안정적 공급이 됩니다.  
 안심하고 정사에만 전념하실 수 있습니다.

치킨양념 소스	참깨 소스	과전 파우더
치킨간장소스	불고기 소스	프렌치프라이 시즈닝
치킨 파우더	순두부 시즈닝	부대찌개 소스
치킨 염지제	순두부 다대기	갈비 소스, 자육복음 소스
떡볶이 소스	샤브 육수	김치찌개 소스

전화: 857.237.4985(문자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메일: farandoleusa@gmail.com  
 웹사이트: www.farandole.co.kr  
 한국공장: 경기 안산 단원 상곡 638-4 102동 파방돌

파방돌 공장 전경



레스토랑 주소: 175 Massachusetts ave, Boston, MA 02115 (버클리 음대 맞은편)

##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 JESSICA BEAUTY

한국 종합 화장품 | 참존 화장품 직영

**시선집중** 잡티개선, 주름개선, 탄력개선, 미백까지...

“화장품에도 당신의 인격과 품격이 묻어납니다”

나만의 화장품으로, 내 피부는 내가 만든다.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주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상륙** 참존 스킨타우샴에서 피부관리 하시는  
 멤버에게만 사용하는 제품

**처진 피부에 회소식**

스킨타운 프리미엄 리와이징 크림으로  
 처진 피부를 개선 (탄력강화 조식이 살아납니다)  
 잡티 개선 참연셀 비타민C.E크림



617.770.0188  
 온라인 쇼핑몰 오픈 | 무료배송

**JessicaSecret.com**

219 Quincy Ave. #31-A, Quincy, MA 02169  
 金門 Kam Man Food 중국마켓 안에 있습니다

# 부인, 헛웃음, 음모론, 비판, 자책으로 점철된 차대통령 인터뷰

정규재TV 인터뷰...차분한 가운데 민감한 질문에 원색 비판

(서울=뉴스1) 김현, 조소영, 서송희, 김수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전격적으로 진행된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과의 인터뷰에서 대체로 차분한 자세와 목소리를 유지하며 답변을 했다.

그러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와의 밀회설 등 일부 질문에 대해선 "나라의 품격이 떨어지는 얘기", "저질스러운 거짓말이 난무한다" 등 강도높은 표현을 쓰거나 "어이 없다"며 헛웃음을 짓기도 했다.

전체 59분 분량의 인터뷰 동영상상을 보면, 박 대통령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 주필과 마주앉아 차분한 톤으로 정 주필의 질문에 답했다.

박 대통령은 특유의 올림머리를 하고 갈색 상의에 베이지색 재킷을 입은 채 인터뷰를 했다. 평소 즐겨 하던 목

걸이는 하지 않은 모습이였다.

박 대통령은 정 주필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제기되는 각종 의혹 등에 대한 질문에 차분한 어조로 답변을 이어갔다.

하지만, 정윤회 밀회설, 정유라 친딸설, 최순실씨와 경제공동체설 등 민감한 질문에는 단호한 톤으로 부인했다. 특유의 손동작이 중간중간 나오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정씨와 밀회설에 대해선 쓴웃음을 지으며 "한 마디로 나라 품격 떨어지는 얘기", "민망스럽기 그지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정유라씨가 자신의 딸이라는 소문과 관련해선 "자꾸 품격 떨어지는 얘기만 한다. 참 끔찍한 거짓말도 웬만해하지, 그렇게 저질스러운 거짓말이 난무한다"고 말했다고, 최씨와 경제공동체 주장에 대해선 "아휴"라고 긴 한숨을 내쉬며 "그 자체도 말

도 안 되는 거짓말", "엮어도 너무 엮어 거지(억지)로 엮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폐쇄가 최씨의 작품이 아니냐는 물음에 헛웃음과 함께 몸을 뒤로 젖히며 "어이가 없다. 정말 어이가 없는 얘기"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데 대해선 뭔가 생각을 곱씹는 듯한 표정을 보이며 "그동안 쫓 진행과정 추적해보면 뭔가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최씨의 국정농단을 사전에 막지 못한 것은 대통령이 지켜야 할 것에 대해 소홀한 게 아니었느냐'는 지적엔 "이번에 비로소 알게 된 일들을 보면서 '야, 그런 일도 있었구나', '그것은 내가 살피지 못했다면 그게 내 불찰이고 잘못'이라는 생각을 했다"면서 허를 차며 자책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낸 듯 정 주필이 '꼭 하고 싶었

던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뭘, 너무 질문 많이 해서..."라고 웃음을 보인 뒤 "지난 선거 때 1500만이 넘는 국민이 저를 열렬히 지지해줘서 이렇게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 제대로 보답을 못 드려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두고 이번

인터뷰를 진행한 것을 의식한 듯 "지금 '즐거운 명절 보내십시오' 하는 것도 적절한 인사가 될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하도 무거운 이야기 많이 나누고, 그러나 설이 내일 모레니까 국민 여러분이 오붓한 분위기 속에서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를 기원하겠다"고 했다.

gayunlove@news1.kr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규재TV' 운영자인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단독 인터뷰 하고 있다

## 이정미 재판관이 이끌 '8인 헌재'... 탄핵심판 다음달 절정

2월1일부터 소장 권한대행... 10회 변론부터 진행

(서울=뉴스1) 안대용, 최은지 기자 = 31일 퇴임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64·사법연수원 13기)이 25일 임기 내 마지막 재판을 마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방은 이제 이정미 재판관(55·16기)이 이끄는 '8인의 헌재'로 넘어가게 됐다.

9회 변론을 지나 점점 '절정'으로 향하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8인 체제의 헌재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박 소장은 9회 변론을 마치면서 "다음 기일부터는 이정미 재판관이 본 재판소장의 권한대행으로 재판장 역할을 맡아 변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박 소장을 제외한 8인의 재판관 중 임명일자가 가장 앞선 재판관이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장의 자리가 비게 될 경우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그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규칙에 따라 자동으로 이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박 소장이 퇴임 전 공개 변론을 통해 "이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는다"고 밝힌 것은 소장 공백에 따른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재판관은 앞서 탄핵심판이 본

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주심 강일원 재판관(58·14기), 이진성 재판관(61·10기)과 함께 준비절차기일을 이끌 '수명재판관'을 맡은 바 있다. 박 소장 퇴임 다음 날인 2월1일부터 이 재판관은 소장 권한대행이자 탄핵심판 재판장으로 '8인의 헌재'를 이끌게 된다.

당장 2월1일엔 탄핵심판 10회 변론이 열린다. 오전 10시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64), 오후 2시 국정기획수석을 지낸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59), 오후 4시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모철민 주프랑스대사(59)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헌재는 그 이후 2월7일과 9일 탄핵심판 11·12회 변론을 열기로 했다.

하지만 이 재판관도 오는 3월13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8인 체제의 헌재에 주어진 시간은 그리 넉넉하지 않다.

박 소장은 마지막 재판에서 자신의 퇴임과 이 재판관의 퇴임으로 인한 심리 공백을 우려하며 "3월13일 전까지는 선고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재판관이 이끄는 '8인의 헌재'가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을 언제 열 것인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

dandy@news1.kr

## 차·최순실의 반격 시작됐다... '잘 짜인 각본' 논란 속 노림수는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궁지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적극적인 여론전을 펴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최씨가 25일 특검에 출석하며 작심발언을 내뱉자 박 대통령은 보수 인터넷매체와 전격 인터뷰로 화답했다. 26일에는 최씨 변호인이 특검의 강압수사 주장을 펼치며 연일 '특검 흔들기'에 여념이 없다.

박 대통령과 최씨가 주머니받거니 자극적 언사를 쏟아내며 찰떡 공조를 통해 여론몰이에 나섰다. 특검은 최소한의 대응만으로 이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강압수사를 이유로 소환조사를 거부해온 최씨는 25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특검에 강제구인됐다. 최씨는 조사실로 이동하며 고함을 지르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돌발 행동을 했다.

최씨는 "어린 손자까지 멸망시켰다고 하고,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며 "박 대통령과 경제공동체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너무 억울하다"며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린 손자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이라고 울부짖듯 내뱉었다. 이같은 최씨 주장에 특검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근거 없는 트집으로 특검 수사에 흠을 내고자 하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박 대통령은 보수매체와의 '전격 인터뷰'로 바통

을 이어받아 장단을 맞췄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규재TV'와 1시간가량 인터뷰를 갖고 헌재심판과 특검 수사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허황된 거짓말"로 규정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탄핵하기 위해서 그토록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만들어 내야만 했다"고 한다면 그 탄핵 근거가 얼마나 취약한 건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최순실씨 측의 문화계 인사 천거" 등 이번 탄핵, 특검과 관련한 일부 질의에 대해서는 "없다. 아니다"며 부인으로 일관했다.

26일엔 최씨 측이 기자회견을 자처해 특검이 폭언과 강압수사로 인권침해를 했으며 "제3기관에서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조사실의 폐쇄 회로(CC)TV 녹화 영상과 녹음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최씨가 언론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자 박 대통령이 이에 화답하고, 다시 최씨가 변호인을 통해 장단을 맞추며 긴밀히 공조하는 모양새다.

특검은 최씨와 박 대통령의 행위가 수사 지연과 여론의 반전을 피하는 행위로 의심하면서 구상 중인 타임스케줄에 맞춰 흔들림 없이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26일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어떠한 강압수사나 자백 강요 등이 없었고, 인권침해를 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특검보는 "수사에 대한 이의제기에 상관없이 특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그런 상황에 개의치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 같은 일방적 주장에 일절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을 겨냥해서도 '최씨 측의 기자회견 등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면조사 일정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못박았다.

최씨와 박 대통령의 언행이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 특검이 이같은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씨 측의 수사 지연전략은 점점 노골적이다.

최씨는 지난달 24일 이후 여섯 차례 소환조사에 불응하며 버텼다. 특검은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서야 간신히 조사실에 불러낼 수 있었다. 그러나 최씨가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관련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태도를 고수해 조사에 애를 먹고 있다.

특검은 전날에 이어 26일 최씨를 재소환했다. 이 특검보는 "어제 본격 조사 이후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하는 상황"이라며 "오늘의 경우 도착은 아침 10시 이전에 했지만 입회해야 할 변호사가 기자회견장에 가 있어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onki@news1.kr

# H MART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http://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WEEKLY SALE JAN. 27 - FEB. 2, 2017

**BULGOGI TORTILLA PIZZA. LIGHT, YET FILLING AND DELICIOUS. MAKE IT TONIGHT.**

Satisfy your pizza cravings with a healthier alternative.

맛과 간편성, 건강을 모두 만족시키는 불고기 또띠야 피자를 H마트와 함께 만들어보세요!  
 Share it [facebook.com/hmartofficial](https://facebook.com/hmartofficial) Learn to cook it [pinterest.com/hmartusa](https://pinterest.com/hmartusa)



<p><b>Korean Singo Pear</b> 한국산 신고배 8cm/box <b>\$24.99</b></p>	<p><b>Oriental Sweet Potato</b> 고구마 Medium Size <b>\$1.49</b> lb.</p>	<p><b>Ginger</b> 생강 <b>\$1.29</b> lb.</p>	<p><b>SOONYEOWON Tofu</b> 수녀원 콩두부 Soft/Firm/Silken/14-Koz. <b>\$0.99</b></p>	<p><b>Nagaimo</b> 일본 마 <b>\$5.99</b> lb.</p>
<p><b>Gobo</b> 우엉 <b>\$1.99</b> lb.</p>	<p><b>Lotus Root</b> 연근 <b>\$1.88</b> lb.</p>	<p><b>Washington Fuji Apple Premium</b> 워싱턴 후지사과 프리미엄 <b>\$1.49</b> lb.</p>	<p><b>Purple Sweet Potato</b> 보라색 고구마 <b>\$1.99</b> lb.</p>	<p><b>Kabocha</b> 단호박 <b>\$0.88</b> lb.</p>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p><b>Chicken Drumstick</b> 치킨 드럼스틱 <b>\$1.49</b> lb.</p>	<p><b>Sliced Pork Single Belly for BBQ</b> 바베크용 생삼겹살 <b>\$7.99</b> lb.</p>
<p><b>Beef Eye Round Chunk</b> 장조림용 흉두께 <b>\$6.99</b> lb.</p>	<p><b>Pork Baby Back Ribs for BBQ/Cut</b> 바베크용 돼지 등갈비 <b>\$4.99</b> lb.</p>
<p><b>Sliced Beef Short Plate</b> 냉동 삼겹 양지 슬라이스 <b>\$7.99</b> lb.</p>	<p><b>Marinated Tenderized Beef Rib Eye Steak</b> 양념 버릴 등심 스테이크 <b>\$6.99</b> lb.</p>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p><b>TONGTOMBAY Half Cut Swimming Crab</b> 동동배 절반 꽃게 2.1/1.5 lbs. - pkg. <b>\$29.99</b> pkg./lb.</p>	<p><b>Abalone 냉동 진육</b> FRIDAY/SUN ONLY 27/28/29 ONLY <b>\$19.99</b> lb.</p>
<p><b>TONGTOMBAY Pollock Fillet</b> 동동배 동태전갈 6-line /pkg. <b>\$1.99</b> lb.</p>	<p><b>SEA PRODUCTS Half-Shell Mussels</b> 반갯, 혼합 2 lbs./pkg. <b>\$7.99</b> lb.</p>
<p><b>GLOBAL Unagi Kabayaki</b> 글로벌 우나기 <b>\$4.99</b> lb.</p>	<p><b>Monkfish Tail 아구 물동</b> FRIDAY/SUN ONLY 27/28/29 ONLY <b>\$3.99</b> lb.</p>

**SMART CARD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p><b>KORUHO Extra Fancy Medium Grain Rice (Yellow)</b> 국보 쌀 (옐로우) 15 lbs. <b>\$9.99</b></p>	<p><b>SAMHAK Rice Cakes Sliced</b> 산학 떡국떡 3 lbs. <b>\$4.99</b></p>
<p><b>KWANGCHUN 공천 녹차김</b> Green Seaweed Larver Original 1.71oz. x 1000/box <b>\$9.99</b></p>	<p><b>DONGSUH Maxim Coffee Mix</b> Original/Mocha Cold Brew 100ct/box <b>\$9.99</b></p>

**HELLO HOME**  
HELLO HOME Recipe Contest!

HELLO HOME와 함께하는 나의 레시피 이벤트

HELLO HOME를 이용해 나의 레시피를 만들어봐! 대박 상품이 내거려!!! 참여할 해도 소정의 상품 증정!

Please visit [Hellohome.com](http://Hellohome.com) for detailed information.

<p><b>경기미 Kyung G Medium Grain Rice</b> 18 lbs. <b>\$9.99</b></p>	<p><b>KADOYA Pure Sesame Oil</b> 가도야 참기름 288 oz. <b>\$14.99</b></p>	<p><b>KIKKOMAN Soy Sauce</b> 기꼬만 간장 1gal <b>\$12.99</b></p>	<p><b>GOMPYO All Purpose Wheat Flour</b> 곰표 중력 다목적용 밀가루 5.5 lbs. <b>\$3.99</b></p>	<p><b>CHORIPCONG Fried Fish Cake</b> 추경동미 순경선살 참깨 오일 1.1 lbs. <b>\$2.99</b></p>
<p><b>HAOREUM Canned Sea Shell</b> 해오름 굴생미 14.1oz. <b>\$4.99</b></p>	<p><b>HOUSEFOODS Chinese Mabo Tofu Sauce</b> Mid-Hot/Mild-Hot 5.28oz. 하우스푸드 맵두부 소스 <b>\$2.95</b> 1/2 lb.</p>	<p><b>HAOREUM Roasted Chestnuts</b> 해오름 볶인 밤 1.52oz. <b>\$0.99</b></p>	<p><b>HAOREUM Citron Tea with Honey</b> 해오름 유자차 2.2 lbs. <b>\$4.99</b></p>	<p><b>MELONI K-TOWN Melon Sesame &amp; Coconut</b> 6.84oz. <b>\$0.99</b></p>
<p><b>HAOREUM Banana Flavored Milk</b> 해오름 바나나맛 우유 12oz/pkg. <b>\$3.99</b></p>	<p><b>Bounty Paper Towels</b> 바운티 페이퍼 타월 12/pkg. <b>\$13.99</b></p>	<p><b>KINHAUS Humidifier</b> Kinhaus <b>\$27.99</b> <del>\$49.99</del></p>	<p><b>Candle Set</b> 제사용 양초 세트 <b>\$3.99</b> <del>\$6.99</del></p>	<p><b>Wooden Table</b> 나무 직교자상 12인용 12' x 31.0" x 23.0" mm. <b>\$59.99</b> <del>\$89.99</del></p>

During the selling process, there may be unavailability. Best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prices exclude taxes and major credit cards. [www.hmart.com](http://www.hmart.com)  
 HAVIT BURLINGTON STORE: 43 W. Middle Street, Burlington, MA 01803 / TEL: 781-221-4020 / STORE HOURS: Sun - Thu 10am - 9pm / Fri - Sat 10am - 10pm

# 특검 "최씨 조사 때 강압·자백강요 없어...일방적 주장 유감"

### 최씨 측 특검 신뢰·명예 훼손

(서울=뉴스1) 조재현, 심연기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특검의 강압 수사가 있었다'는 최순실씨(61·구속 기소)측 주장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어떠한 강압수사나 자백 강요 등이 없었고, 인권 침해할 한 적도 없다"고 전면 반박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최씨는 핵심 수사 대상자로서 더욱 철저히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 자세로 엄정하게 수사하도

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지난해 12월24일 조사 당시 최씨 측의 주장처럼 '삼족을 멸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때는 최씨의 입장과 개괄적 상황 파악을 위한 것으로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할 이유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최씨 측의 주장과 달리 면담은 변호인도 동의한 것이고 수사원칙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당시 변호인의 참여 없이 면담이 이뤄진 것은 24일 오후 10

시30분부터 11시35분까지 약 1시간이다. 이미 변호인에게 그 부분을 고지했었다"면서 "정식 조서를 작성한 것이 아닌 면담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혀 수사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도 당시 변호인 없이 면담을 하는 것에 대해 이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최씨 측의 '강압수사' 주장에 개의치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이 특검보는 "최씨 측이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특검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는 일방적 주장에 일절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도 했다.

이 특검보는 "최씨 조사에 입회해야 할 변호인이 이날 오전 있었던 기자회견 등을 이유로 입회하지 않아, 최씨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cho84@news1.kr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이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최순실 측 "특검, '삼족 멸하고 가족 파멸' 폭언 위협했다"

### "직권남용해 변호인 조력권 행사 방해"

### "청와대 측과 교감 없어...조사실 CCTV 녹음 공개"

(서울=뉴스1) 조재현, 심연기, 구교운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 변호를 담당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이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무시하고, '삼족을 멸하고 모든 가족들을 파멸로 만들어 버릴 것' 등 폭행보다 더 상처를 주는 폭언을 연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은 최씨를 겨냥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언동하는 등 초헌법적 발상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26일 오전 최씨가 주장한 '특검 강압수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그간 특검에서 있었던 인권유린과 변호인 조력권 배제에 대해 특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발 방지 요청을 했지만, 특검은 오히려 사실을 호도하고 언론을 통해 피고인을 비난하고 있어 더 이상의 인권침해적 수사가 없기를 간청하면서 진상을 알고자 한다"며 특검 수사의 문제점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이 변호사는 먼저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그러나 특검은 지난해 12월24일 오후 10시40분부터 다음날인 25일 오전 1시까지 변호인을 따돌리고 구속된 최씨를 신문했다"고 주장했다.

12월24일은 최씨가 특검에 처음 소환돼 조사를 받은 날이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면담'이라는 핑계로 변호인(오태희 변호사)의 참여를 불허하고 밖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2시간이 지나 변호인이 입회를 요구하자 특검은 변호인 입회하에 신문을 진행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10시30분쯤 변호인에게 조사가 끝났으므로 변호인은 귀가해도 된다

고 했고, 최씨도 구치소로 귀소한다고 고지했다. 하지만 특검은 10분 후인 10시4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사이 최씨에게 '박근혜 대통령과 모든 면에서 공동체라는 걸 자백하라'고 여러 번 소리를 질렀다. 이때 최씨가 경제공동체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는 특검이 활용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며 "특검 관계자가 수사상 직권을 남용해 변호인을 배제시켜, 최씨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 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특검이 최씨를 향해 고압적·강압적으로 폭언·위협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특검은 최씨에게 △죄는 죄대로 받게 할 것이고, 삼족을 멸하고 모든 가족들을 파멸로 만들어 버릴 것 △딸(정유라)은 물론이고 손자까지 감옥에 가게 될 것이며 대대손손 이 땅에서 얼굴을 못 들게 하고 죄를 묻고, 죄인으로 살게 할 것 △특검에 들어온 이상 협조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특검은 수사직권을 행사함에 있어 최씨에게 폭행보다 더 상처를 주는 폭언을 연발해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이는 형법 제125조의 독직가혹행위죄를 범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어느 특검 관계자가 최씨를 겨냥해 '최순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했다"면서 "특검은 형사 피의자인 피고인의 용서여부를 조사나 증거 없이 결정할 아무런 권한이 없으며 이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는 최씨에 대한 증오심을 표현한 것이다. 분노나 증오심으로 특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국회가 위임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변호인 측은 같은달 27일 최씨를 서울구치소에서 접견하며 조사 당시 상황을 전해듣고, 특검에 연락해 전후 사정을 확인했으나 특검은 폭언 등 가혹행위는 극부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의 호소가 진정성이 있고 전후 정황상 사실이라고 판단, 같은해 30일과 이달 4일 두 번에 걸쳐 특검에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진정했으나 특검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 같은 특검의 인권침해는 제3기관에서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나아가 "특검 조사실에 폐쇄회로(CC)TV가 구축돼 있을 것"이라며 "당시 녹화된 녹음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변호사는 앞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과 특검의 수사방향이 달라 최씨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등 주요 혐의 사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죄로 기소했으나, 특검은 같은 사안에 대해 뇌물,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검찰은 두 재단에 출연한 기업을 피해자로 봤는데 특검 수사에서는 2개월

만에 출연기업을 범죄자로 바꿨다"면서 "하지만 검찰과 특검이 피해자를 범죄자로 전환한 데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둘 중 한쪽은 명백히 오류인데 국민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변호인들도 어느 쪽으로 방어권 준비를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이 같은 특검의 태도는 형사사법체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전날 박 대통령이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과의 인터뷰를 하고, 최씨가 출석 때 특검의 강압수사를 주장한 것이 청와대의 사전 교감에 따른 것이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가급적이면 정치적인 부분과 연결되는 것을 경계해서 보고 있다"며 "불필요한 오해는 없었으면 한다"고 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앞서 25일 브리핑에서 최씨의 강압 수사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 "특검은 근거 없는 주장에 개의치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에 개입한 혐의(업무방해)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최씨는 25일에 이어 특검에 재소환됐다. 전날 특검의 강압수사를 작성한 듯 비판했던 최씨는 이날 별다른 말 없이 마스크를 쓴 채 공장 조사실로 향했다.

cho84@news1.kr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열린 특검 강압수사 주장 관련 기자회견에서 한 시민의 항의를 받고 있다



**Premier Realty Group**

**AGENT WANTED**

PREMIER REALTY GROUP과 함께 할 에이전트를 모집합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ww.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Realtor**  
Direct: 888.361.6064  
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Realtor**  
Direct: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NEW LISTINGS**



**Single Family**  
5 Duxton Lane Acton MA  
9,547sqft, 9.13 Acres 8 Bed  
4.5 Bath  
**Under Agreement**



**Condo**  
28 Boylston Rd, Unit 1 Newton MA  
동문형의 2 Bed 1 Bath 870 sqft  
Condo 2 parking space  
**SOLD**



**Condo**  
20 Westford Ave, Brighton MA 2 Units  
Brighton Center에 있는 2000년 된  
renewed Condo. Best Street View,  
Hard T-wood의 거실은 83 평의 1/2  
**Asking \$291,000, \$299,000**



**한식&일식 식당**  
Physical 양재 위치, Full Equip,  
Lots of foot traffic, great exposure,  
monthly turnover.  
**Asking \$700,000**

**LISTINGS**

1.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2.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3.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4.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5.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6.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7.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8.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9.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10.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11.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12.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13.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14.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15.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16.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17.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18.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19.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20.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21.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22.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23.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24.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25.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26.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27.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28.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29.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30.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31.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32.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33.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34.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35.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36.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37.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38.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39.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40.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41.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42.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43.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44.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45.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46.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47.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48.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49.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50.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51.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52.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53.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54.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55.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56.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57.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58.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59.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60.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61.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62.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63.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64.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65.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66.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67.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68.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69.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70.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71.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72.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73.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74.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75.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76.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77.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78.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79.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80.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81.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82.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83.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84.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85.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86.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87.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88.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89.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90.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91.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92.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93.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94.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95.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96.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97.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98.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99.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100.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b>SOLD</b>



**한식&일식 식당**  
보스톤 서쪽, Full Liquor  
면적상: 1.7M, 좋은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799,000**



**일식당**  
Beer and wine 포함  
Leasings 지역  
좋은 위치  
**Asking \$190,000**



**컨비니언스 스토어**  
Cambridge에 위치  
**Asking \$140,000**



**비즈니스 폰도**  
Brookline  
현재 서비스업합중.  
좋은 임대수입  
**Asking \$509,000**



**한국식당**  
보스톤 남쪽에 위치  
Full liquor, 양장면 수리  
넓은 공간  
**Asking \$140,000**



**세탁소**  
보스톤 북부 세탁소  
안정적인 매출  
**Asking \$180,000**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보경: 508.361.6064    줄리 전: 978.494.2043**

# 고함질렀던 최순실, 오늘은 '침묵'으로 특검 출석

### 마스크 쓴 채 취재진 질문에 답 없어

(서울=뉴스1) 조재현, 심언기 기자 =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에 개입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2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재소환됐다.

특검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를 재소환했다. 그는 전날 오전 특검에 출석해 13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최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호송차에서 내렸다. 전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특검의 강압수사를 작심한 듯 비판했

던 최씨는 이날 별다른 말 없이 마스크를 쓴 채 곤장 조사실로 향했다.

최씨는 '특검의 강압수사를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 '변호인 외에 의견 구한 사람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특검은 전날 최씨를 상대로 이대 입학 등에 개입한 경위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55)과의 공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특검 조사를 받은 최씨는 특검 조사 내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선 강하

게 부인했지만, 상당부분 질문에 대해선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최씨를 다시 부른 특검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하지만 최씨는 특검이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며 전날처럼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 최씨가 주장한 '강압수사'와 관련한 기자회견도 연다.

하지만 특검은 최씨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최씨가 묵비권을 행사해도 행사하는 그대로 조서를 작성하면 되는 것"이라며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씨의 체포영장은 집행 시부터 48시간인 27일 오전 9시쯤까지 유효하다.

최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조사한 특검은 최씨의 신병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추가로 뇌물 혐의의 체포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된 혐의 외에 별도의 혐의를 적용해 새로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있다.

cho84@news1.kr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최순실 씨가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소환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 차뇌물죄·우병우 등 갈길 먼 특검, 수사기간 연장 저울질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한연장 신청 여부를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26일로 공식 수사기간 70일 중 37일치를 맞으며 반환점을 돌았다. 하지만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그 측근들의 국정농단이 워낙 방대한 분야에 걸쳐 이뤄져 규명해야 할 의혹은 여전히 산더미다.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현 정부 들어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 등 요직을 두루 거친 황교안 권한대행이 과연 대통령을 겨냥 특검의 활동 연장을 허가할지 관심이 모인다. 황 대행의 대선출마 여부도 특검 기한연장의 변수로 꼽힌다.

특검팀은 수사초반 검찰이 파헤치지 못했던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이화여대 입시비리 등에서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블랙리스트 수사에서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구속)과 현직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 등을 구속했다(조 장관은 구속 직후 사표를 제출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연루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이대비리 수사에서도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62·구속) 등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을 이끌어냈다. 최경희 전 총장(55)을 상대로 한 구속영장 기각이 옥에 티다.

반면 박 대통령과 최씨 일가, 삼성 간 뇌물 혐의 입증에 집중해온 특검은 다른 대기업들 특혜의혹 수사에서는 거의 진전이 없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기각으로 뇌물죄 수사에서 주춤했다. 영장 재청구를 위해 보강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특검은 SK·CJ·롯데 등을 겨냥한 수사를 미루면서까지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해당 기업들로선 시간을 번 셈이지만 특검팀으로선 향후 수사에서 촉박한 일정에 쫓기게 됐다.

이대비리 사건을 마무리지은 특검 수사2팀은 더디게 진행됐던 '비선진료' 의혹 수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비선진료 수사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과도 맞닿아 있다. 김영재 원장 등 핵심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해온 만큼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설 직후로 예상되는 청와대 압수수색과 2월 초로 계획중인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추진 여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현재 범법검토를 전부 마친 상태이고 압수수색 방법을 놓고 검토중에 있다"며 압수수색 초읽기를 시사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의미한 물증을 잡아낸다면 특검 수사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하지만 증거인멸 가능성도 커 압수수색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추가 자료와 그간 수사결과물을 토대로 박 대통령과의 대면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검이 갈아온 칼날이 얼마만큼 날카로우냐에 따라 성과도 달라질 전망이다.

여기에 특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한 수사도 예고해놓은 상태다. 우 전 수석은 최씨 등의 비리행위를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했거나 그 행위에 직접 관여·방조·비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검찰 수사 및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장모와 최씨의 친분설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특검 활동기한 연장은 전적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에 달렸다. 한 차례, 30일 기한연장은 황 대행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황 대행은 수사경과를 지켜본 뒤 특검 요청이 있으면 고려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특검은 최대한 주어진 기한에 맞춰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정농단사건 수사과정에서 각종 새로운 의혹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켜어나오는 상황인 만큼 수사기간 연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황 대행은 박 대통령의 신임을 두둑이 받으며

현정부에서 승승장구 해왔다.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지난 2011년 검찰복을 벗은 황 대행은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에 임명됐다. 이후 2년3개월간 법무부장관으로서 통진당 해산 등을 지휘하며 박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다.

황 대행은 장관 퇴임 직후 재차 국무총리로 지명돼 2015년 6월부터 국무총리직을 수행해왔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초반 총리 경질 카드로 반전을 시도했지만 김병준 후보자가 낙마하며 오뎅이처럼 다시 일어섰다. 이어 국회의 탄핵안 통과 이후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황 대행이 박 대통령의 최측근이란 점에서 특검 연장안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최근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이 유력하다는 전망과 더불어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심각한 민심이반을 마냥 뭉개기도 힘들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황 대행이 애써 비호에 나서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 대행이 새누리당의 차기 대선주자로 떠오르는 점도 변수다.

국정농단 파문으로 지지율이 급락한 여당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영입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친박계를 중심으로 여당에선 황 권한대행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황 대행이 대선출마를 결심한다면 특검 연장 승인 여부의 득실계산에 골몰할 것으로 보인다.

황 대행이 연장안을 승인해주면 박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는 형국으로,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특검의 박 대통령 구속수사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골수 보수층 이탈을 불러올 수 있어 고민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의 연결고리 차단으로 의연확장엔 더욱 수월하다.

반면 연장안을 거부할 경우 대선에 출마해도 보수후보로 낙인찍힌다는 점이 부담된다. 차기 대선이 다자대결 구도로 치러질 것이 확실한 만큼 오히려 황 대행이 확실한 보수 색채로 어부지리를 꾀할 가능성도 있다.

황 대행은 2월28일까지 진행되는 특검 수사 진행 경과와 그에 따른 여론 향배, 대선출마 결심 등 다양한 변수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뒤 특검 연장안 가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onki@news1.kr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불판

## 바베큐&라운지



ALL YOU CAN EAT:  
**\$39.95**

안장살, 주물럭, 불고기, 차돌박이, 닭불고기, 돼지불고기, 삼겹살, 뼈없는 갈비, LA갈비, 통심, 곱창, 새우, 오징어, 모듬고기 등 순두부찌개, 된장찌개, 김치찌개, 각종 반찬 및 공기밥



### 가장 신선한 고기를 마음껏 즐기세요!

**영업 시간**  
 Mon-Thu : 11:30am to 10:00pm  
 Fri-Sat : 11:30am to 11:00pm  
 Sun: 12:00pm to 10:00pm

**연회석**  
60여명 수용, 가라오케 완비

**스시바**  
각종 스시 및 상생한 회

**히바치**

**바베큐**  
안장살, 주물럭 등 각종 바베큐

**BAR**  
Full Liquor 라이센스




**BULPAN RESTAURANT**  
Korean BBQ, Hibachi, Sushi & Chinese


## 781.863.2800

27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스트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Dedicated to  
Your Health

# Icon Dental

##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백성편과 톱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마이클 멘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형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33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dentallexington.com](mailto:info@icodentallexington.com)  
[www.icodentallexington.com](http://www.ico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Dr. Larisa Turka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통 현**  
 교정 전문의

# 민주 경선룰 마련...李·安 "존중" vs 朴·金 "유감"

민주당, 24일 모바일·결선투표 등 '완전국민경선안' 확정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대선 잠룡들은 24일 당이 마련한 경선룰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의원은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이날 민주당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회는 모바일투표를 시행하고 1차 투표에서 최대 득표자의 득표율이 과반에 미달할 경우 1, 2차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선 후보 경선룰을 마련했다.

이에 안 지사의 대변인격인 박수현 전 민주당 의원은 "안 지사는 경선룰

을 당에 백지위임했다"며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공동정부 구성을 위한 원탁회의 등을 제안한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김부겸 의원의 반응은 상반됐다.

이 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의원까지 참여해 아름다운 경선이 될 수 있도록 당의 적극적인 배려와 역할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 의원 측 허영일 대변인은 "김 의원과 박 시장, 이 시장 세 사람이 합의해 당에 제안한 내용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당헌당규위가 당규제정

안을 의결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 대변인은 "공동정부 구성을 위해서는 제1당인 민주당이 먼저 다른 야당에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통 큰 양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고위원회 결정에 재고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시장 측의 박홍근 민주당 의원 또한 "주자들의 합의 없이 당이 일방적으로 경선규칙을 확정하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지도부는 (공동정부 추진) 요청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 있는 답변이나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전례 없는 일방통행만 보여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동정부 추진을 제안한 대선주자들과 국회의원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당 지도부가 공동정부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아직 경선룰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parksj@news1.kr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장이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규칙과 관련, "국민이 누구나 동등한 권한을 갖고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완전) 국민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선거인단은 전화, 인터넷, 현장서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

## 박원순 전격 불출마선언...민주 경선레이스 출렁

당 지도부 "예상 못했는데 안타깝다"...안희정 이재명 등과 연대할 경우 파괴력 커질듯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고심 끝에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레이스도 출렁이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부터 대선경선 예비후보 등록을 받고 본격적인 흥행에 나선다는 계획이었다.

조기대선 가능성에 가장 먼저 안정적으로 경선을 준비해온 민주당은 레이스 초반부터 흥행몰이를 시도해 당내 유력 대선주자들의 지지율 상승에 기여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박 시장이 이날 전격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도 일시적이거나 당황하는 분위기다. 당은 박 시장의 지지율이 다소 정체된 상황이었지만 완주는 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이번 경선에 흠집이 나는 것은 막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당 사무총장인 안규백 의원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당혹스럽다"며 "박 시장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들어봐야겠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도 "소식을 전해 듣고 깜짝 놀랐고 여러모로 당황스럽다"며 "서울시정 성과도 많으시고 당에서 중요한 분인데 불출마를 선언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당에서는 박 시장이 제안한 공동정부 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물론 일각에서는 박 시장의 불출마가 당내 대선경선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박 시장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워낙 낮은 상태에서 정체돼 있었던 탓이다.

다만, 비문(非文)으로 분류되던 박 시장의 불출마로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박 시장과 같은 의견을 내고 비슷한 행보를 걸었던 김부겸 의원마저 박 시장과 같은 행보를 보일 경우 합종연횡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박 시장이 안희정 충남지사나 이재명 성남시장과 연대를 할 경우 그 파괴력은 더 커질 수 있다.

sanghwi@news1.kr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대선 불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회를 떠나고 있다

## 민주당 6명 "상처주고 분열하는 경선 안돼"...감시자 자처

"후보간 경쟁격화, 정권교체 가는 가장 큰 걸림돌"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은 26일 성명을 내고 "상처와 분열이 아닌 단결과 통합의 경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우원식 강훈식 기동민 김성수 김태년 이원욱 이철희 전 해철 제윤경 의원 등 당내 제계과를 망라한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당의 대선후보 선출경선과정에서 분열과 반목으로 서로에게 상처주는 일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권교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 내부의 단결"이라며 "후보 간 과도한 경쟁은 나아서 말리고 지지자 간 모욕적 언사로 서로에게 상처주는 일에는 쓴소리도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우리 당 대선 후보 간 경쟁격화는 후보 간 대립으로 그치지 않고 지지자 그룹의 반목과 갈등 양상마저 보인다"며 "상대 후보를 모욕주고 헐뜯고, 합리적 비판에 대해서조차 집단적 행동을 통해 위협을 느끼게 만드는 이러한 행위야말로 내부분열을 만드는 것이며 정권교체로 가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후보를 비롯해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을 포함한 모든 지지자 그룹은 민주당으로 하나여야 한다"며 "정책으로, 철학과 신념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되 그 경쟁의 끝이 상처와 분열이 아닌 단결과 통합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당내경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변재일(왼쪽부터), 우원식, 송영길, 남인순 흥영표 의원





**BERKSHIRE HATHAWAY** | **N.E. Prime Properties**  
HomeServices



**Clara Paik**  
617.921.6979



**김형진**  
781.956.0409



**주승원**  
617.780.7839



**박성종**  
617.304.7001



**William Glanton**  
978.394.2017

## 안녕하세요?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Opportunities를  
찾으시는 손님들이나  
파시기 원하시는 손님들은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Berkshire Hathaway  
Home Services &  
Commercial Division에서는  
미주 각주에서 들어 오시는  
큰 회사로 오시는 손님들을  
직접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에만  
20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저희 회사의 연결망에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감사합니다.

대표 백영주 올림



**Allen Quinn**  
978.897.2781



**이현주**  
401.935.3397



**제니스 리**  
978.806.6023



**Madeline Chen**  
781.491.3228



**Kevin Curry**  
978.852.2969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 수퍼볼 경기를 즐기기 위한 팩트 체크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와 아틀란타 팔콘스가 지상 최대의 경기인 수퍼볼에서 맞붙게 되었다. 미국인들이 가장 열광하는 수퍼볼 경기에 앞서 두 팀에 대해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 사실들을 소개한다.

1. 패트리어츠는 팔콘스를 상대로 2월 5일 일요일 휴스턴에 위치한 엔알지 스타디움에서 51회 수퍼볼 경기를 치르게 된다. 두 팀 모두 컨퍼런스 챔피언십 경기에서 상대팀을 압도하였는데, 패트리어츠는 스틸러스를 36 대 17로, 팔콘스는 팩커스를 44 대 21로 격파했다. 챔피언십 경기가 모두 19점 차이 이상 점수 차이로 끝났던 적은 NFL 역사상 두 번째이다.

2. 패트리어츠는 이미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수퍼볼 우승 확률이 가장 높은 팀으로 예상되었다. 반면에 팔콘스는 NFL 전체 32개 팀 중에서 수퍼볼 우승 가능성이 28위로 예측되었던 팀이다.

3. 이번 수퍼볼 경기는 리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득점하는 팔콘스와 가장 적은 점수를 허용하고 있는 패트리어츠와의 경기라 더욱 관심을 모은다. 가장 강한 창과 가장 강한 방패의 대결인 것이다. 풋볼에서는 챔피언십 같이

큰 경기에서 수비가 공격을 이긴다는 것이 정설이다. 수퍼볼에서 공격 1위팀과 수비 1위팀이 붙었던 적은 총 6번이었는데, 수비가 강한 팀이 5번을 이겼다. 가까운 예로 48회 수퍼볼 경기에서 막강한 수비력을 자랑하는 시호크스가 당시 최고의 공격력을 갖추었던 브롱코스를 43 대 8이라는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누르고 승리했다.

4. 패트리어츠는 9번이나 수퍼볼에 진출하여 NFL 역사상 수퍼볼에 가장 많이 진출한 팀이 되었다. 패트리어츠의 이전 수퍼볼 성적은 4승 4패다. 쿼터백 탐 브래디와 빌 벨리치 감독은 수퍼볼에서 4승 2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2패는 모두 자이언츠에게 당한 것이다.

5. 팔콘스는 이번이 두 번째 수퍼볼 진출이다. 1998년에 수퍼볼에 진출했으나, 전설적인 쿼터백 존 엘웨이가 이끄는 브롱코스에 패했다. 이후 팔콘스는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더라도 매번 초반에 탈락했다. 1998년 이후로 팔콘스가 플레이오프에서 2승 이상을 거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6. 브래디는 지금까지 팔콘스와 4번 경기를 한 적이 있는데 모두 승리했다. 브래디가 가장 최근에 팔콘스를 만났던 적은 2013년으로 원정경기임에도 30 대 23으로 승리했다.



올해 수퍼볼 경기는 탐 브래디와 맷 라이언이라는 최고 쿼터백 간의 대결이 성사되었다

7. 이번에 패트리어츠가 수퍼볼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브래디는 수퍼볼 우승 반지를 5개 보유한 최초의 쿼터백이 된다. 이미 브래디는 플레이오프에서 24승을 기록하고 있으며, NFL 통산 플레이오프 최다승 기록이다. 팔콘스의 쿼터백 맷 라이언은 플레이오프 성적이 3승 4패다. 라이언은 올해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으며 정규시즌 MVP가

가장 유력한 선수다. 브래디와 라이언은 쿼터백 레이팅, 패스 시도당 야드, 패싱 야드, 패싱 터치다운, 패스 성공률 등 쿼터백의 성적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에서 1, 2위를 다투었다.

8. 팔콘스는 올해 정규시즌에서 540 점을 득점해 NFL 역사상 7번째로 많은 점수를 기록했다. 반면에 6번째로

많은 점수를 상대팀에게 허용했고, 전체 수비 순위는 25위였다. 패트리어츠는 공격이 4위, 수비가 8위로 비교적 균형이 잡혀 있고, 무엇보다 상대팀에게 가장 적은 점수를 허용했다. 올해 플레이오프 경기에서는 패트리어츠가 69 대 33, 팔콘스가 80 대 41 점을 기록했다.

jsi@bostonkorea.com

## 샌프란시스코 "황재균 우리의 가족", 계약 공식 확인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스플릿계약을 맺은 황재균(30)의 영입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샌프란시스코는 25일 "환영한다. 황재균은 샌프란시스코의 가족"이라며 그가 샌프란시스코 모자를 쓰고 있는 인스타그램 사진을 공개했다.

황재균은 지난 24일 샌프란시스코와 빅리그에 올라갈 경우 150만달러를 보장받고, 인센티브 160만달러 등 총 310만달러를 받을 수 있는 스플릿 계약에 도장을 찍었다. 25일 미국으로 출국한 황재균은 현지에서 메디컬 테스트 등을 거쳤고 구단은 그와의 계약을 공개했다.

메이저리그 홈페이지인 엠엘비닷컴(MLB.com)은 이날 "황재균이 샌프란시스코와 마이너 계약을 맺었다. 바비 에반스 샌프란시스코 단장이 공식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우타자인 황재균이 올 시즌 무난하게 빅리그에 올라올 것으로 봤다. MLB.com은 "우타자인 황재균은 좌타자인 코너 길라스피와 함께 플레툰으로 출전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한명의 경쟁자인 에두아르도 누네스는 일단 유틸리티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점쳤다.

더 나아가 매체는 "샌프란시스코의 연봉 총액이 1억9500만달러(사치세 부과 기준)를 넘을 것으로 보여 트레버 플루프, 루이스 발부어나 등 FA를 데려올 여유가 없었다"면서 "구단은 (FA라)포스팅비가 들지 않는 황재균을 데려오면서 경제적 대안을 찾은 것"이라고 영입 배경을 설명했다.

스프링캠프 초청 자격을 얻은 황재균은 25일 미국으로 출국했고, 현지에서 몸을 만든 뒤 내달 애리조나에 있는 팀 스프링캠프에 합류할 예정이다.

alexsei@news1.kr



미국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입단하는 황재균이 25일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다

## 美 매체 "오승환, 올해 34세이브-ERA 2.68 예상"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미국 현지에서 메이저리그 2년 차를 맞는 오승환(35·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2017시즌에 좋은 성적을 낼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미국 '블리처리포트'는 25일 포지션별 기대되는 상위 10명의 선수를 선정했다. 오승환은 불펜투수 중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매체는 지난해 성적을 바탕으로 올해 기록을 예상했는데 오승환은 3승34세이브, 평균자책점 2.68, 이닝당 출루허용률(WHIP) 1.06, 75탈삼진의 성적을 거둘 것으로 봤다.

2016시즌을 앞두고 2년간 옵션 포함 최대 1100만달러에 세인트루이스 유니폼을 입은 오승환은 첫 해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면서 마무리 자리를 꿰찼다.

초반에는 트레버 로젠탈에 앞선 셋업맨으로 출발했지만 시즌 중간에 로젠탈의 부진 속에 클로저로 변신, 임무를 수행했다.

'끝판대장' 오승환은 76경기 79%이닝에 나와 6승3패, 19세이브 14홀드 평균자책점 1.92의 성적을 냈다. 삼진 103개를 잡아냈고, WHIP도 0.92에 그칠 정도로 뛰어난 기록이었다.

앞서 ESPN 등 현지매체에서 올해도 오승환이 순항할 것으로 예상한 데 이어 블리처리포트도 올해 그가 마무리를 굳건하게 지킬 것으로 점쳤다.

WHIP와 평균자책점이 다소 늘었지만 34세이브를 올릴 것으로 전망한 것은 그만큼 오승환의 활약이 기대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매체는 최고의 불펜 투수로 뉴욕 양키스와 5년 8600만달러에 계약한 아롤디스 채프먼을 꼽았다. 채프먼은 올해 평균자책점 1.75에 2승37세이브 WHIP 0.98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 뒤를 켄리 켄슨(LA다저스·40세이브, 평균자책점 1.88), 에드윈 디아즈(시애틀 매리너스·38세이브, 평균자책점 2.29), 웨이드 데이비스(시카고 컵스·41세이브, 평균자책점 2.18)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오승환 외에 나머지 코리언리거들은 매체가 꼽은 포지션별 톱10에 포함되지 못했다.

alexsei@news1.kr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마무리 오승환(35)

# POSPay



##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아직도 카드를 긁고 계십니까?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십시오!



본손: Boston



돼지곰: NJ



Mr. Sushi: Arlington



VIP Nails: RI



Queena Nails



Great Nails: GA



My Cleaners: CT



Classic Cleaners: Boston



Professional Cleaners: GA

**<고객 절약 사례>**  
본손: 20% 절약  
돼지곰: 16% 절약  
Mr. Sushi: 19% 절약  
VIP Nails: 22% 절약  
Queena Nails: 24% 절약  
Great Nails: 37% 절약  
My Cleaners: 41% 절약  
Classic Cleaners: 13% 절약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www.pospay24.com](http://www.pospay24.com)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성양두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drew's Episcopal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미사(한국말)  
오전 11시30분 (교중미사)  
오후 4시30분 (청년주관)

영어미사 (English Mass)  
오전 10시

평일미사  
(화) 오전 10시 30분  
(목) 오후 7시30분

매달 첫 토요일 성모신심미사  
(토) 오전 10시 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45 Ash St. Newton MA02466 /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 www.std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교회살을 노래하는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http://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경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보스톤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이 길은 살아가신 하나님의 길이고 사랑과 기쁨의 길입니다 (말 3:18)

주일예배 / 오후 2:45 | 금요일기도회 / 저녁 7:30  
송년 / 송년 / 초빙 / 경외봉부설회 / 생연부요청  
Grace Bible Study / 수 12:00 | LIFE 모임 / 주일 8:00

담당 목사 / 무지함

7 Clarendon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rinity Covenant Church)  
Tel: (781) 715-0571 / Fax: (781) 645-0407  
[bostongracechurch.org](http://bostongracechurch.org)

**보스톤 밀알 한인 장로교회**

가르치고 전파하라  
(매 4:25)

예배시간:  
주일 1부 9:30, 2부 11:00  
금요일 9:00

담당목사: 박일중

주주: 15 Alpha Rd.  
Chelmsford MA 01824  
전화: 978.537.9117  
[www.millal-church.org](http://www.millal-church.org)  
Lexington에서 25분,  
H-14에서 15분 거리

성경대로 열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SARANGJELGWOCHU

담임목사: 권종상  
Faith Theological Seminary, Ft. DR.  
New York Univ. MA.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전 10시
주일 학교	오전 11시
평일 예배	오전 7시
수요 예배	오전 7시
구별 예배	각 구별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ynn, MA 01904 Tel: (978) 985-0285, (978) 944-2404  
[www.sarangjelchurch.com](http://www.sarangjelchurch.com)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 주일학교: 오후 2시  
공교동부: 오후 2시 |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 |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http://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8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9: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수요기도회: 오전 8:00(9~월)  
우스터한인연합교회: 월 9:30~11:30

담임목사: 김현덕  
817.780.4178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902.796.4488  
<http://www.wkmc.org>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CHOISIGNS & DESIGN

LED Signs,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mailto:choisigns@yahoo.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사렛에 대해 진리 말씀 배우하며 믿음을 쌓아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주께 사모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회를 이루고자합니다.  
질문, 곤란, 진리, 사랑, 용서, 부활을 믿는 믿음을 살아가게합니다.

*예배를 준비합니다.*

금요일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송년 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30, 토 오전 7:30  
영양예배 주일오후 12:30  
속죄예배 수-주일 속죄일  
특별예배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6:50, 목 오후 8:30

**비전교회**  
The pastor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esttown, MA 02472 Tel: 617.744.8887  
[www.growwithus.org](http://www.growwithus.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2it UP SOLUTION

내외는 뉴저지 뉴멕시코 등 카드결제 관련회사에서 미 경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 2it 2000년도 최고기업, 가치제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 최적의 경쟁력 제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내외 비즈니스가 경쟁력 **이선호**  
781.266.7245



# HAPPY

## 해피돌상

**고급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고품격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겐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푸짐하게!**







- 음력을 더하는 최권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기저귀 케이크
- 국내산 용기류와 천기, 골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꽃대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617.249.3131 [Happydolsang@gmail.com](mailto:Happydolsang@gmail.com)



## 크라우저 앤 서 로펌

### MIAMI – BOSTON – D.C.

이민법/국제법 전문 로펌 Immigration Law/International Law/Customs Law



**Henry Crouser**  
변호사

**스티브 서**  
변호사

###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주재원 비자 (L-1)
- 취업이민 (EB-2, EB-3, EB-4)
- 투자이민 (EB-5)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미국 세관 CBP 압류재산 회수
- 단기연수원 비자 (H-3)
- 특가자 비자(O-1, P-1)
- 종교비자 (R-1)
- 투자비자 (E-2)
- 가족초청이민

VISIT US AT :  
[www.stevesuh.com](http://www.stevesuh.com) / [www.suhlawyer.com](http://www.suhlawyer.com)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실 곳: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신용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2/3**

렉싱턴에 있는 식당. 웨이터 또는 웨이트레스 및 주방에서 일하실 분 구함.  
T. 781-860-0171 (Kay)

**MA 운전면허증**

- 신규 및 갱신 (Renewal)
- 타주면허증 당일 재발급
- 한국면허증 소유자 무시험 교환
- 소셜번호 없는 분도 환영
- \* 운전면허 어려움 있는 분 상담

T: 857.615.1416, 917.340.0595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2/17**

에이어에 있는 청계식품에서 일하실 남자분 구합니다  
T. 978-772-5213

**1/20**

청소하실 분 모집합니다.  
영주권 소지자.  
T. 617-869-1698

**1/27**

북부 보스톤 지역 세탁소에서 카운터 구함. 풀타임. 초보자 환영  
T. 978-462-9951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4989 부동산 매대는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메사추세츠주 태권도 협회**  
Massachusetts State Taekwondo Association

**MSTA**  
Massachusetts State Taekwondo Association

고문단장: 안 남 열    고문: 이 강 원

고문: 구 정 희    고문: 조 형 구

회장: 정 제 형    부회장: 허 훈    부회장: 리치안    사무총장: 전 명 호    회계: 김 희 용

웹사이트: 강 창 남  
시범단장: 홍 순 우  
경기위원장: 강 민 석  
심판위원장: Michael Agosti  
홍보부장: Maureen Maher-Killelea

[www.masta.us](http://www.masta.us)

KUKKIWON    USA TAEKWONDO

2016년 메사추세츠 주 태권도 협회원 가입현황  
\*단체회원(\$200/년): 정제형, 허훈, 리치안, 홍순우, 김희용, 전명호, 강민석  
\*정회원(\$100/년): 강창남

370 Boston Tpk., Shrewsbury, MA 01545  
Phone 508-792-5534 . FAX 508-767-0113

# 한인 업소록

## Korean Business Directory

###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제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베이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역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4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올/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하	617-351-4500
펠러버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선교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 주요 단체

국회발전기성선교연합회	978-407-7554
국회발전기성선교연합회(NE)	603-889-8201
뉴잉글랜드공공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전문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학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탁인협회	508-826-5270
이북5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연합회	781-424-5269
FH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야구동맹(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신학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턴 신학회	978-569-3256
보스턴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등포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동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동교회	617-792-8780
그리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미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동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252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알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턴 국제교회	978-844-2404
보스턴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턴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턴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턴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턴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턴 생명의교회	978-578-6987
보스턴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턴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턴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턴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턴시온성교회	781-275-1763
보스턴안식교회	781-279-3270
보스턴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턴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턴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턴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턴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턴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턴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턴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턴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누리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더 벨렘교회	978-274-2369
엘리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트 시온교회	413-549-9203
올스타한인교회	617-642-7400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우스타장로교회	781-354-1843
워십프린터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켄싱턴성교회	617-770-2755
하버드 한인선교회	617-441-5211

###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	--------------

###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 건강식품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터	781-238-0303
---------------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대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팡사이딩 청문	617-999-9616
이놀드 건축	617-833-1360
파인원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 골프개인

골프레스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

### 공인 회계사

김영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 꽃

미스틱화원	617-666-3116
대교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류영욱)	617-777-2929
에이저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 냉동/에어컨/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	--------------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턴공립도서관	617-539-5400

### 당구장

올스타당구장	617-782-0969
--------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래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김 동물병원	978-658-5282

### 떡/잔치/반찬(주문)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달콤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 헤어	508-734-0446
케이티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지희 헤어(Bi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샵롱	508-879-7777
MIN-AH MAKEUP	508-617-7122
Scotty's of Lexington	718-861-1277

### 대상 대여/폐백

해피대상	617-249-3131
폐백	978-688-0929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	--------------

###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9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9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셈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하버드뱅크(이재용)	617-421-2282
한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우진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형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 양미아헤일리카운셀링

508-728-0832
--------------

###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덕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추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Hana Rehab Clinic	617-566-1199
보스턴컨테드카어로	617-277-0648

###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키치이안운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완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어닉스	617-871-1482
켄지소아치과	617-471-2184
손영권치과	978-459-0594
프리스트덴탈그룹	617-5

# 노인 건강 위협하는 3대 질환, 겨울철에 특히 조심해야

휴암 네트워크와 제휴한 '에이치 플러스 양지병원' ... "폐렴, 심장질환, 골절 등 3대 노인성 질환, 연령대가 높을수록 위험도 더 높아져"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고 최저 기온이 영하 이하로 떨어지는 등 기온 변화가 심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기온이 낮아지고 일교차가 심해지는 겨울철에는 면역력이 저하되기 쉽고 근육 등이 경직되기 쉬워 다양한 질환 및 부상에 시달리기 쉽다. 그 중에서도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고 신체 능력이 떨어져 이런 문제들에 더욱 취약한데, 점차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성 질환의 증가와 함께 환절기의 건강 문제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폐렴과 심장질환의 경우 매년 증가세를 기록, 지난해 각각 사망순위 4위와 2위를 기록했으며, 이에 따른 사망자 수도 늘어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골절도 노인층 절반 이상이 병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요양비 비중도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치플러스(H+) 양지병원 가정의학과 유태호 과장은 "폐렴, 심장질환, 골절 등 노인성 질환의 경우 겨울철에 잦아지는 만큼 예방 및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평소 건강이 좋지 않거나 혹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예방은 물론 병원을 방문해 제대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전체 환자 수는 약간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36%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른 사망자 수도 늘고 있다. 지난해 사망원인 중 폐렴은 4위를 차지, 10년 전 10위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고령층 사망자 수도 10만 명 당 209명을 기록, 전 연령대 1위인 암을 뛰어넘

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이 폐렴구균에 감염될 경우 사망률이 최대 60~80%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인 만큼 주의해야 한다.

② 심장질환, 전체 사망자 중 80% 이상이 노인 : 심장질환 또한 겨울 초입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다. 기온이 갑자기 낮아지면 혈관이 수축, 이를 통해 혈압이 상승하고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된다. 더불어 노인성 질환의 하나이기도 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사망원인 중 심장질환은 암에 이어 2위를 차지했는데, 이 또한 폐렴과 마찬가지로 2005년 3위보다 순위가 상승한 수치이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심근경색, 협심증 등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편으로, 65세 이상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③ 치명적 합병증 불러오는 골절 : 기온이 떨어지면 근육과 관절이 경직되고, 두꺼운 옷을 입으면서 움직임도 둔화되어 이로 인한 낙상 및 골절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운동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러한 돌발상황에 취약할뿐더러 골밀도 등도 떨어져 낙상 및 골절 위험성이 높다. 실제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1년 간 낙상 횟수는 2.3회, 이로 인한 병원이용률은 63.4%에 이르며, 지난 2년 간 골절로 요양급여비가 지출된 내역 중 60대 이상이 53.3%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층의 비중이 높다. 특히 고령층이 골절을 입을 경우 회복이 느리고, 이로 인해 욕창, 폐렴, 요로감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좋다. 또한 비누를 이용해 40초 이상 손을 씻고, 양치 시 치아, 혀, 구강 점막 등을 세정하는 등 청결 유지 또한 필수적이다.

심장질환의 경우 과음과 흡연을 삼가야 한다. 흡연은 만병의 근원으로, 특히 흡연 시 발생하는 니코틴, 일산화탄소, 각종 발암물질 등은 혈관을 수축시켜 심장에 부담을 주는 한편 동맥경화를 유발시키거나 악화시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다. 기온이 떨어진 아침에 운동하거나 평소 하지 않은 운동을 갑작스럽게 할 경우에도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만큼 삼가야 한다.

낙상 및 골절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이다. 실내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맨손 운동 등은 몸의 유연성 및 골밀도를 높여줘 낙상을 예방하는 한편 부상강도도 낮춰줄 수 있다. 외출시에는 두꺼운 옷 대신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 보온성 및 활동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또한 지팡이 등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낙상을 방지할 수 있다. 골절의 경우 외부가 아닌 집안 내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미끄러울 수 있는 화장실 등에 미끄럼 방지 타일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좋다.

H+양지병원 유태호 과장은 "노인성 질환을 앓는 고령층의 경우 몸상태가 안 좋아져도 대화증상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어서 치명적인 결과를 낼 수 있으니 반드시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백신, 청결, 운동 등 지속적인 예방 활동은 물론 적시에 치료 받아야

노인성 질환은 그 위험도가 높은 만큼 무엇보다 철저한 관리와 예방이 중요하다. 특히 폐렴의 경우 65세 이상 환자의 경우 35~50%까지 사망률이 올라가는 만큼 미리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카이로프랙틱이란?”** : 우리 몸은 남녀노소 모두 31쌍의 척추신경을 가지고 있으며 뇌로부터 이 신호를 통해 신호를 통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전달해야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충격, 과로, 교통사고나 잘못된 생활 습관 등으로 척추가 어긋나게 되면서 척추신경 압박 및 압통으로 뇌로부터의 신호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여 우리 몸에 통증과 같은 이상이 생깁니다. 이러한 척추의 어긋난 곳을 정확하게 찾아 가장 안전하게 바로잡는 것이 바로 카이로프랙틱입니다.



**원장 : Dr. 유정호, D.C.**  
(Dr. Jeongho Yoo, D.C.)

- Graduated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Seminar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Methodology Institute
- Certified International Board of Extremity Chiropractors
- 한양대학교 졸업 및 ROTC 47기
- Active license in MA (#3524)

### 진료과목

- 척추계통 : 목 / 목 / 허리 / 골반 통풍, 디스크 질환
- 사지계통 : 어깨, 무릎, 손목, 발목, 턱관절 통증
- 신경/순환 계통 : 손발 저림, 좌골신경통, 두통, 알러지, 소화불량
- 교통/재정/운동 사고 : 물리치료와 병행하여 후유증 해소
- 어린이/학생/성인 자세 관련 통풍 및 척추측만 교정

**개인기밀 특별**  
\*\*\*  
• 카이로프랙틱 상담  
• 당일 척추 평가  
(20000~30000)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주요보험: 일반보험(PO), 후쿠에이, 한국/유학생/이민자/교통사고 보험 등 다수

**진료시간**  
월-금(M-F) : 9am-5pm  
토(Sat) : 10am-12am  
일(Sun) : Closed





## '군함도' 소지섭부터 송중기까지 지옥섬에 간 이유

(서울=뉴스1스타) 명희숙 기자 = 영화 '군함도'(감독 류승완) 예고편이 공개됐다.

'군함도' 측은 25일 강한 전율과 울림을 전하는 런칭 포스터와 런칭 예고편을 최초 공개하며 베일을 벗었다.

런칭 포스터는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여명의 순간, 거칠게 몰아치는 파도 위 모습을 드러낸 군함도의 위압적인 전경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길이 480m, 폭 160m 그리고 약 10m의 암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섬으로 군함 모양을 닮아 '군함도'라 불렸다.

1940년대 일제 강점기 당시 수많은 조선인들이 강제 징용된 곳으로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이자 지옥으로 불렸던 군함도의 모습을 담은 포스터는 "1945년, 일제강점기, 우리는 그곳을 지옥섬이라고 불렀다"는 카피로 가슴을 묵직하게 만든다.

일본의 기적이라 불렸지만, 조선인들에게 지옥과도 같았던 군함도의 위압적인 모습으로 첫 베일을 벗은 '군함도'. 강렬한 런칭 포스터를 통해 역사 속에 감춰진 진실을 모티브로 펼쳐질 조선인들의 가슴 뜨거운 이야기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을 배가시킨다.

포스터와 함께 최초 공개된 '군함도' 런칭 예고편은 해저 1,000미터가 넘는 갯도의 끝, 지하 막장

으로 향하는 조선인들의 모습이 흑백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모든 비용을 조선인의 임금에서 제한다는 부당한 규칙 사항이 흐르며 시작부터 시선을 사로잡는다.

섭씨 40도까지 치솟는 해저 탄광, 허리조차 펴수 없는 그곳에서 몸을 움크린 채 채굴 작업을 하는 조선인 소년들의 모습, 예고 없이 닥치는 가스 폭발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위험한 상황은 "탈출할 수도, 죽을 수도 없다"는 카피가 더해져 착취와 고난의 연속인 군함도 조선인들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어 "이 곳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조선인들이 단 한 사람도 남아 있어선 안된다"는 일본인의 대사에 맞서, 목숨을 걸고 군함도에서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조선인들의 모습과 촛불로 의지를 드러내는 장면은 가슴 깊이 묵직한 전율을 전한다.

여기에 일본으로 보내주겠다는 말에 속아 딸과 함께 군함도로 오게 된 악단장 '이강욱' 역의 황정민과 경성 최고의 주먹 '최칠성' 역의 소지섭, 군함도에 잠입하는 독립군 '박무영' 역의 송중기, 군함도에 강제로 끌려온 '말년'으로 분한 이정현까지, 배우들의 새로운 모습과 혼신을 다한 연기가 더해진다.

reddgreen35@news1.kr

## "시국 영화 파급력"...'더 킹', 키워드로 풀어본 핫이슈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현재 상영 중인 '더 킹'은 무소불위 권력을 쥐고 폄나게 살고 싶었던 태수(조인성 분)가 대한민국을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는 권력의 설계자 한강식(정우성 분)을 만나 세상의 왕으로 올라서기 위해 펼치는 이야기다. 무엇보다 '더 킹'은 관객들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입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영화 속에 담긴 풍자와 해학은 현 대한민국의 상황과 비교되며 각계각층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 주목된다.

#더 킹의 시작 #한재림 감독 #노무현 대통령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담아낸 만큼 '더 킹'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및 실제 사건들이 등장한다. 한재림 감독은 언론시사회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및 서거가 영화 '더 킹'을 시작하게 된 계기였다. 그 사건은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라며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에 대해 전했다. 한재림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든 이유처럼 '더 킹' 속에는 노무현 전 대통

령 탄핵 당시 뉴스 화면이 그대로 나오는 것은 물론, 그 당시의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등을 직접적으로 묘사해 뜨거운 이슈를 낳고 있다.

#끊임없는 정치적 이슈 #특정인물 떠올리는 캐릭터

최근 박사모 카페에서는 "정우성 주연 '더 킹' 절대 보이콧. 애국 시민의 무서움과 강력한 결속력을 보여주자"는 게시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이에 다수의 누리꾼들이 "내가 두 번 보겠다"는 반응을 보이며 N차 관람 열풍에 불을 지폈다. 그 뿐만 아니라 국회 대표실 최고 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최고위원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대화에서 "박봉과 야근 등 격무에 시달리는 99% 검사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1% 정치검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더 킹'을 보면서 국민은 김기춘, 우병우를 떠올린다"고 전해 현 편의 영화가 정치적 이슈로까지 확산됐다.

aluem\_chang@news1.kr



## '도깨비' 한국인이 좋아하는 TV프로그램 1위

(서울=뉴스1스타) 강희정 기자 = 'tvN 드라마 '도깨비'가 비지상과 최초로 프로그램 선호도 조사 1위에 올랐다.

한국갤럽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12명에게 요즘 가장 즐겨보는 TV프로그램을 묻은 결과(2개까지 자유응답), tvN 금토드라마 '쓸쓸하고 찬란하神-도깨비'(이하 도깨비)는 선호도 12.6%로 1위를 차지하며 2년 넘게 이어진 MBC '무한도전'의 독주(獨走)에 제동을 걸었다.

'도깨비'는 김신(공유 분)과 지은탁(김고은

분), 저승사자(이동욱 분)와 씨니(유인나 분) 두 커플의 시간간 초월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로, 특히 20~40대 여성이 크게 호응했다. 조사 직후 주말인 21일 종영했다.

2013년 1월 이후 '한국인이 좋아하는 TV프로그램' 조사에서 비지상과 프로그램이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상파와 비지상파를 통틀어 드라마 선호도 최고치도 경신했다.

hjk0706@news1.kr



# 한주간



# 시청률 순위

2017년 1월 16일 ~ 2017년 1월 22일

##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월계수양복점신사들)	31.2%
2	SBS	월화드라마(낭만닥터김사부)	27.3%
3	KBS1	일일연속극(빛나라은수)	23.7%
4	SBS	드라마스페셜(푸른바다의전설)	19.6%
5	KBS2	일일드라마(다시첫사랑)	18.8%
6	MBC	주말드라마(불어라미풍아)	16.6%
7	KBS1	KBS9시뉴스	15.6%
8	KBS2	해피선데이	15.2%
9	SBS	K팝스타더라스트찬스	14.8%
9	SBS	정글의법칙N코타마나도	14.8%

## Tbo Play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월계수양복점신사들)
2	KBS2	TV소설(저 하늘의 태양이)
3	MBC	주말드라마(불어라미풍아)
4	SBS	일일드라마(사랑은방울방울)
5	KBS1	일일연속극(빛나라은수)
6	MBC	MBC아침드라마(언제나봄날)
7	KBS2	일일드라마(다시첫사랑)
8	MBC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9	MBC	일일특별기획(황금주머니)
10	SBS	아침연속극(아임쓰리강남구)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행복한 척	수지
02	당신의 밤 (Feat. 오혁)	황광희 X 개코
03	에라 모르겠다	BIGBANG
04	좋다고 말해	볼빨간사춘기
05	오랜 날 오랜 밤	악동뮤지션
06	Decalcomanie (데칼코마니)	마마무
07	LAST DANCE	BIGBANG
08	TT	TWICE
09	저 별	헤이즈
10	소나기	아이오아이

## 숫자 퍼즐 (Sudoku)

	1	7	5	6			8	
		6			3			
	5			8	9		1	
	6							
4	7		9	3	1		6	5
							2	
	2		6	5			3	
			3				2	
	8			1	7	5	9	

1월 29일 - 2월 4일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b>쥐띠   함박 미소를 짓게</b></p> <p>●운수:새로운 것을 시도하기에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고 스스로도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와서 함박 미소를 짓게 될 것입니다. ●금전: 떨어졌던 매상이 다시 오겠습니다. 나갔던 돈이나 받아야 할 돈을 받게 되니 주머니 사정이 나아질 것입니다. ●애정: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어 보세요. 서로를 위한 바람직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29, 2일 길일, 31, 3일 주의.</p>	<p><b>소띠   다시 한 번 확인하는</b></p> <p>●운수: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꼼꼼히 체크를 한다고 했는데도 잘못된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금전:알게 모르게 돈이 세어나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싼 것이라도 당장 꼭 써야 할 것이거나 필요한 것이 아니면 구입하지 마세요. ●애정: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아주 사소한 이유로 멀어질 수 있으니 눈치껏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30, 3일 길일, 29, 1일 주의.</p>	<p><b>범띠   일의 순서를 정해서</b></p> <p>●운수:가만히 앉아서 운운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이 급한 것인지 일의 순서를 정해서 먼저 해야 할 일부터 처리하세요. ●금전:노력 없이 결과를 바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추진해야 합니다. ●애정:미리 앞서서 괜히 사서 걱정한 격이 되기 쉽습니다.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별 탈 없이 조용히 잘 지나갈 것입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31, 4일 길일, 30, 2일 주의.</p>
<p><b>토끼띠   희망의 끈을</b></p> <p>●운수:좋은 상황이 나빠지는 것이 한 순간이듯이 힘든 상황이 좋게 바뀌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금전:주중보다는 주말에 일이 더 잘 풀리고 수입도 나아질 것입니다. 들어오는 것 못지않게 나가는 것도 중요하니 지출에 신경 써야 합니다. ●애정:현재 처한 모든 원인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원망하는 마음도 사라집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1, 4일 길일, 31, 3일 주의.</p>	<p><b>용띠   원칙을 지켜야</b></p> <p>●운수:내가 하는 조언이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을 바꿀만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해야겠습니다. ●금전: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하니 지출을 최대한 줄여나가야 합니다. 특히 현실에 걸맞는 생활계획을 세우고 원칙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애정:사사건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긍정적인 시각과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려고 해야 합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 3일 길일, 29, 4일 주의.</p>	<p><b>뱀띠   좋은 찬스가</b></p> <p>●운수:변화하기에 좋은 때가 왔습니다. 여행을 가거나 이사나 이전을 할 일이 있으면 이 시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금전:성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기회를 기다리던 사람에게는 좋은 찬스가 옵니다. 점점 더 나아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기다리던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보게 되겠습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31, 3일 길일, 2, 4일 주의.</p>
<p><b>말띠   철저한 확인이 필요</b></p> <p>●운수:힘들 때마다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만 그 시기를 어떻게 지나가느냐 극복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금전: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정황만으로 판단하다가 실수하게 됩니다. ●애정:의논하지 않고 혼자서 결정하지 마세요. 상대는 투명한 취급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30, 4일 길일, 2, 3일 주의.</p>	<p><b>양띠   삶이 주는 무게로</b></p> <p>●운수:삶이 주는 무게로 두 어깨가 처지더라도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는 생각으로 견뎌내야 하겠습니다. ●금전:손해를 볼 수 있는 시기이니 특히 잠깐만 쓰고 값싼다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인정에 약해져서 금전거래를 하면 후회만 남게 됩니다. ●애정: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길게 대화를 나누지 마세요. 격한 신경전을 벌이게 될 수 있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30, 31일 길일, 29, 4일 주의.</p>	<p><b>원숭이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해야</b></p> <p>●운수:더 나은 미래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가장 소중한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훗날에 가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금전:당장 어떤 이익을 얻는 것보다 신뢰를 얻는 것이 더 큰 소득이 되어줄 것입니다. ●애정:한번만 더 용기를 내어보세요. 흑여나 하고 미리 걱정하면서 자꾸 뒷걸음치면 영영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9, 3일 길일, 30, 2일 주의.</p>
<p><b>닭띠   귀인의 도움이 따르고</b></p> <p>●운수:거센 바람이 지나간 후에 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힘든 일이 다 지나가고 더욱 명쾌해질 것입니다. ●금전:귀인의 도움이 따를 것입니다. 처음에 말을 꺼내기가 어렵지 솔직하게 말하면 생각지도 않았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애정: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둘 사이가 좁혀질 수 있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9, 30일 길일, 31, 2일 주의.</p>	<p><b>개띠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b></p> <p>●운수:개가 콩겉 사 먹고 버드나무에 올라가는 격입니다.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를 치는 것처럼 되니 다시 생각하도록 하세요. ●금전:판단력이 흐려지니 제대로 상황을 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투자와 관련된 결정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정:너무 쉽게 속 마음을 보이지 마세요. 잘못 말하면 고민만 더 태는 격이 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31, 4일 길일, 29, 1일 주의.</p>	<p><b>돼지띠   왠지 모를 희망이</b></p> <p>●운수:왠지 모를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냥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뿌듯해지고 미소 짓게 될 것입니다. ●금전:새로운 거래처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좋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는 제의도 들어올 것입니다. ●애정: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세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 이기 뭐라고 감동을 받는가 하겠지만 받는 입장에서 크게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 4일 길일, 30, 2일 주의.</p>

# '내일 그대와' 신민아X이제훈 시간여행 역대급 '도깨비' 이을까

(서울=연합뉴스) 강희정 기자 = 배우 이제훈, 신민아가 안방으로 돌아온다. '도깨비' 열풍을 일으킨 tvN 금토드라마가 또 한번 역대급 기록을 세울 수 있을까.

16부작 '내일 그대와'는 외모, 재력, 인간미까지 갖춘 완벽 스펙의 시간 여행자 유소준(이제훈 분)과 그의 삶에 유일한 예측불허 포토그래퍼 송마린(신민아 분)의 시간여행 로맨스다.

'내일 그대와' 유제원 감독은 앞서 '오 나의 귀신님' '고교 처세왕'을 연출했다. 극본은 '내 아내의 모든 것'을 집필한 허성혜 작가가 맡았다. 배우 이제훈은 지난해 '시그널'에 이어 또 한번 tvN 금토드라마 '타임슬립물'에 도전한다. 그의 첫 로맨틱코미디이기도 하다. 이제훈은 "한번도 로코를 해보지 않아 호기심이 컸다. 미래를 오가는 콘셉트와 유제원 감독에 대한 신뢰로 작품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내일 그대와'는 최근 종영한 '도깨비' 후속으로 더 기대를 받고 있다. 공유 김고은 이동욱 유인나 등이



출연한 '도깨비'는 마지막회에서 tvN 드라마 사상 최고 시청률인 20.5%(닐슨코리아, 전국 유료플랫폼 기준)를 기록, '응답하라 1988'을 넘어서는 역대급 기록을 세웠다. 화

제성도 시청률 못지 않았다. 지상파 드라마를 넘어선 '도깨비', '내일 그대와'는 이런 관심을 이어갈 수 있을까.

hjk0706@news1.kr



## '평생 못 잊을 추억' 원더걸스 '해체'

(서울=뉴스스타) 홍용석 기자 = 해체 수순을 밟는 걸그룹 원더걸스가 육성으로 팬들에게 편지를 남겼다.

26일 오후 원더걸스의 해체가 공식화된 가운데 JYP엔터테인먼트는 공식 SNS에 원더걸스 팬클럽 '원더풀'에 대한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는 원더걸스의 활동 모습이 담겼다. 중간에는 원더걸스 멤버들의 육성 편지도 들을 수 있다.

원더걸스는 팬들에게 "벌써 우리가 함께 해온 지도 10년이 다 되어가네요. 다 같이 울고, 웃고, 슬퍼하고 기뻐하던 그 많고 많은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저희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다. 먹먹한 음성이었다.

이어 "10년 동안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항상 저희 편이 먼저 되어 주시고 또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팬분들께 가슴 아픈 소식을 들려드리게 되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미안하고,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원더걸스는 "감사하고 감사하며, 또 고맙고 고맙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꿈만 같았던 나날들이었습니다" 거듭 인사하며 "지금까지, 원더걸스였습니다"라고 말을 맺었다.

한편 JYP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원더걸스의 해체를 공식 발표했다. 원더걸스 중 유빈, 헤림은 JYP와 재계약을 체결했으며 예은, 선미는 JYP를 떠난다.

star@news1.kr

## '주간아이돌' 에릭, 신들린 듯한 애교 "내가 바로 문블리"

(서울=뉴스스타) 김나희 기자 = 그룹 신화 멤버들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애교를 마음껏 발산했다.

25일 오후 6시 방송된 MBC every1 예능 프로그램 '주간 아이돌'에서는 토끼 머리띠를 쓴 채 애교를

보여주는 멤버들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멤버들은 힘들어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애교를 피웠고, 특히 리더 에릭은 귀여운 소리와 제스처로 '문블리'라는 애칭까지 얻었다.

이어 앤디는 애교를 가득한 몸짓으로 이민우에게 돌진, "끔찍할 정도의 애교"라고 해서 끔찍하게 했다 "고 설명해 웃음을 자아냈다.

nahee126@news1.kr



###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STATES INSPECTION

##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량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adysagon 10 min / Newton 20 min  
E-mail: sunautobody@yahoo.com

###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R.A. & N.Y.) • BOARD - G.O.T. - L.M.S.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특수주택과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특별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력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통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 TBO PLAY RATINGS

##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티보플레이 1월 3째주 시청률 BEST10

1	KBS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2	KBS	TV소설(저 하늘의 태양이)
3	MBC	불어라 미풍아
4	SBS	사랑은 방울방울
5	KBS	빛나라 은수
6	MBC	언제나 봄날
7	KBS	다시 첫사랑
8	MBC	행복을 주는 사람
9	MBC	황금주머니
10	SBS	아임쏘리 강남구

### 티보플레이 1월 3째주 신규 방송

1	CJ	내성적인 보스
---	----	---------

### 티보플레이 1월 3째주 최신 영화

# 현모양처? 고고함? '사임당', 고정관념 깨고 태어난 이야기

(서울=뉴스1스타) 권수빈 기자 = '사임당'이 2년에 걸친 제작 기간 끝에 드디어 공개된다.

'사임당'은 한국미술사를 전공한 시간강사 서지윤(이영애 분)이 이탈리아에서 신사임당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수전방 일기와 미인도를 발견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다.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면서 일기에 얽힌 비밀과 이겸(송승헌 분)과의 사랑, 예술가로서의 사임당의 모습을 다루는 퓨전 사극이다.

특히 이 드라마가 사임당을 어떠한 시선에서 다루고 있는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다. 박은령 작가는 지금 시대에 고착화된 이미지가 아닌 실제 사임당과 비슷한 면면을 보여 줬다고 밝혔다. 그는 "율곡 선생이 어머니에 대해 쓴 걸 보면 강릉에 계신 친정 어머니가 그리워 새벽까지 잠 못 이루고 슬피 울었다고 썼는데 그건 아들의 시선일 뿐이다"며 현모양처로 대표되는 현대의 이미지의 시선으로 보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는 "워킹맘으로 살아가는 것이 조선시대 때도 만만치 않았을 거다. 본인은 예술가였고 남편은 낙하산으로 간신히 취직했다. 아이들 일곱을 키웠다. 예술을 구현하면서 가정 경제를 이끄는 여자가 어떻게 고요하기만 하고 분노하지 않았을까 싶다. 사람들의 시선으로 굳어진 부분 말고 채워질 수 있는 빈자리가 많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임당'은 오는 26일 밤 10시 첫 방송된다.

ppbn@news1.kr



# '피고인' 지성vs엄기준, 쫓고 쫓기는 진실 공방전의 시작

(서울=뉴스1스타) 권수빈 기자 = 최고의 검사 지성과 희대의 악마 엄기준의 진실 공방전이 시작된다.

지성과 엄기준은 23일 밤 10시 첫 방송을 앞둔 SBS 월화드라마 '피고인'에서 각각 서울 중앙지검 강력부의 에이스 검사 박정우와 차명 그룹의 사고뭉치 차남 차민호 역을 맡아 쫓고 쫓기는 진실게임에 돌입한다.

박정우와 차민호의 악연은 한 살인사건에서 시작된다. 박정우는 범인을 검거하겠다는 일념 하에 사건을 쫓다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차민호를 범인으로 지목한다. 하지만 차민호는 검찰의 수사망을 유유히 빠져나간다. 그는 상상 초월의 방법으로 자신이 범인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만들어낸다.

'피고인' 제작진은 "1회에서는 박정우와 차민호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그려진다. 두 사람이 서로의 숨통을 옥죄게 된 결정적인 사건과 그로 인해 파생된 비극이 숨 가쁘게 펼쳐질 예정"이라며 "진실을 밝히려는 자 박정우와 진실을 덮으려는 자 차민호의 뜨거운 대결에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한다"고 말했다.

ppbn@news1.kr



보스톤권각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같이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로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무제한 시청 월:

# \$39.99

**The Best OnDemand, TBO**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조인성 정우성

ONDemand KOREA

대한민국의 왕은 누구인가

시국 싱크로율 99.9%

# 더 킹

1월 27일 대개봉

AMC Loews Boston Common 19

175 Tremont St, Boston, MA 02111

# 신영의 세상 스케치

581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 밥상머리 정치와 외교

옛말에 '배갯머리 송사'가 있다. 이의 속 뜻은 부부가 함께 자는 잠자리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바를 속살거리며 청하는 일이라고 한다. 요즘은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그리고 친구들과 마주한 자리에서 빠지지 않고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것이 미국의 정치와 한국의 정치 얘기다. 물론 우리 집이라고 예외일 순 없다. 우리 집 남편은 '비즈니스 맨'이니 사업에 관한 정치 얘기가 더욱 관심사이며 미국의 정치권에 관한 서로의 대화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부부 역시도 공화당의 정책이 옳으나 민주당의 정책이 옳으나로 티격태격할 때가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남편은 한국 정치에 관심이 없다가 보다는 잘 모르는 입장이라 아내인 나와 맞서려하지 않는다. 친구 부부들과 만나 한국 정치 얘기를 주고받으면 그 저 듣는 편이다. 그래서 조금은 신경도 하고 아쉽기도 하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큰 녀석이 한 2주 집에 머물다 갔기에 그동안 미국과 한국의 정치 얘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었다. 서로의 생각은 조금씩 달랐지

만, 의견을 존중해주며 나와 다른 또 하나의 생각과 마주할 수 있었던 시간에 감사했었다. 그렇다, 우리는 이렇듯 모두의 생각 모습만큼이나 서로 생각이 다르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이 틀린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다만, 나와 다른 생각이 있구나 받아들이고 그 생각과 더불어 내 생각을 전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틀렸다고 말한다면 대화는 그 자리에서 마침표를 찍고 마는 것이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을뿐더러 계속하다가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 가정의 밥상머리에서의 정치 얘기도 이러한데 한 나라의 정치권의 얘기란 것은 생각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여하튼 요즘은 정치 얘기로 귀가 시끄럽다.

연세 드신 어른들의 생각은 우리 젊은 기성세대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어르신 몇분을 뵈면서 느낄 수 있었다. 그 옛날 일제강점기의 압제와 서러움에서 독립을 하고 또 다시 참담한 전쟁을 겪은 세대이며, 그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뛰어넘어 새마을 운동으로

가난함을 극복했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을 직접 경험한 세대라 그럴 것이다. 가만히 그분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이해는 간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국정농단 사태'를 바로미터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분명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젊은 세대인 나의 생각일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으로 부정부패의 확연한 물증이 드러난 시점에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부인만 거듭하는 태도에 화가 치미는데, 어찌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그것을 묵인하며 상대방이 잘못되고 왜곡됐으며 틀렸다고 거듭 강조하는 것일까. 그것은 지금에 겪고 있는 사태 저 너머의 아주 오래 축적된 정치적인 관습의 뿌리가 아닐까 싶다. 물론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지금 사건들의 여러 증인과 많은 물증이 드러나 있는 시점에서 아니라고 발뺌하는 태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우리 오륙십대 세대의 초등학교 교과서를 펼치면 '국민교육헌장'이 있었다. 우리는 무조건 읽고 외우곤 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

도 몰랐었다. 그러다 어느새 어른이 되었고, 부모가 되어 있다. 요즘에 다시 내 조국의 역사에 대한 공부를 차근차근 시작해 본다. 어릴 적 자라며 세상의 지식이 부족했던 부모님과 동네 어른들의 말씀에 건성건성 들었던 정치 얘기들은 별 관심거리가 아니었다. 그 세대의 특별히 배움이 없으신 어른들은 나라의 대통령이면 최고였다. 그때는 그랬으리라. 고른 배 채워주고 따뜻하게 먹여주면 최고였으리라.

또 하나의 이슈로 떠오른 '블랙리스트'는 참으로 황당한 모습이지 않던가.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란단다. 진보 보수도 아닌 그저 '내 편'이 아니면 '나쁜 사람'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자신에 대한 비판은 수용하지 못하고 무조건 끌어내리라는 그 '명령된 명령'은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이것은 헌법의 위반이며 자유 민주주의 원칙인 언론 자유의 침해이며 예술과 학문의 유린인 것이다. 여전히 변함 없는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난다. 국가의 기본 틀을 무너뜨리고 공적 도덕성과 양심의 결여에 개탄하게 되는 것이다.



Great Stone Face (큰바위 얼굴) 2017. 1월 위키미디어에서

## 한담객설閑談客說: 큰바위 얼굴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내일 모레가 벌써 설날이다. 며칠 후면 입춘이다. 겨울이 성큼 물러서는 듯 싶다. 이번 겨울 잘 지내고 계신가. 이 겨울 광화문 글판이다.

열려있는 손이 있고  
주의 깊은 눈이 있고  
나누어야 할 삶, 삶이 있다.  
(2016년 겨울, 광화문 글판)

큰바위 얼굴. 나타니엘 호손이 쓴 단편 소설이다. 중학교때인가 국어 교과서에 실렸다. 내용이야 교훈적이나 밍밍하다. 줄거리도 간단하다. 산골소년 어네스트는 산위의 바위, 큰바위 얼굴 쳐다보고 자란다. 큰바위 얼굴 바위에는 전설이 있다. 미래에 큰바위의 얼굴과 같은 훌륭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다. 어네스트가 자라면서 성공한 상인, 전공이 많은 퇴역군인, 언변이 화려한 정치인이 차례로 귀환한다. 그런데 그들 모두 기다리던 큰바위 얼굴은 아니었다. 번번히 실망하며 세월이 흐른다. 나이 들어 늙어 가면서, 어네스트는 저명한 시인과 교류한다. 시인은 어네스트를 향해 말한다. 마지막 장면이다. '어네스트씨야 말로 큰바위 얼굴입니다.' 그동안 어네스트는 평범하지

만 성실하고 올바르게 살아왔다. 어네스트는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

반기문 전유엔 사무총장이 임기를 마쳤다. 임기는 성공적이었는지 그건 모르겠다. 대과大過는 없었지 싶다. 그가 한국으로 금의환향했다. 공황이 환영인 파에 난장판이 되었다고 했다. 기사를 읽으며 큰바위 얼굴을 기다리던 사람들과 다름이 없지 않았다. 지지 환영객들이 환호하고 열광했다 했으니 말이다. 반총장이 큰바위 얼굴인가?

반기문 총장의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했다는 말이다. '사내는 일찍 집에 돌아와서는 안된다.' 그저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일찍 귀가 한다면 동네 수퍼 주인이 흥분적이다. 새벽에 출근했다가 밤늦은 시각에 귀가 하는 일이 다반사였으니 말이다. 그 시대엔 상사上司도 밤늦게 까지 일하는걸 당연시했다.

미국 영화 인턴이다. 인상깊은 대사가 몇있다. 은퇴후 다른 회사에 시니어 인턴으로 취업하고자 한다. 면접에서 자기소개로 했던 말이다.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작은 일에도 성실한 사람. 시니어 인턴은 직장상사上司를 만나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상사가 퇴근하

기 전에 먼저 퇴근하지 않는 시대에 일했던 거다. 미국이라고 직장문화가 한국과 확실히 다르지는 않았다. 반기문 총장도 시니어 인턴과 같은 세대이다. 이 인턴이 어네스트인가? 하긴, 한국에선 인턴을 구하는 건 아니다. CEO를 찾고 있다.

복고적 민족주의라고 흔히들 말한다. 'Great America, Again' . 구 소련의 재건. 중화민족의 부흥. 제2의 명치明治유신. 세력과 세력이 부딪쳐 핑을 내는 격랑이 있다. 반기문 총장은 성실한 외교 공무원이었던건 잘 안다. 그가 과연 높고 거센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조타수인가. 그가 상처받은 한국민을 어루만져 안아 줄수있을까. 그가 진정한 우리가 기다리던 큰바위의 얼굴인텐가. 그가 삶을 나눌 수있을 것인가? 아직 판단하기에는 이른 듯 싶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는)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누가: 7:26)

1 나타니엘 호손은 세일럼 출신이다. 콩코드 글랜드즈에서 작품을 썼다. 그랬다 뉴잉글랜드 지역에 사는오기전까지 큰바위의 얼굴이 이곳에 있는 줄 몰랐다.  
2 시니어 인턴은 상사上司로 반역할 수있을까.



**2017 Hyundai Elantra SE**

**This vehicle features:**  
3.5 inch Display LCD Cluster Display, Apple CarPlay

MSRP, As shown, MS211205



LEASE \$69/mo.	MSRP \$15,631	FINANCE 0.9% APR
-------------------	------------------	---------------------

**2016 Hyundai Elantra SE**

**This vehicle features:**  
Advanced safety technology with electronic stability control

MSRP, As shown, MS209995



LEASE \$89/mo.	MSRP \$13,290	FINANCE 0% APR
-------------------	------------------	-------------------

**2016 Hyundai Accent GLS Sedan**

**This vehicle features:**  
Bluetooth, Honda Music, 8-Speakers, 160MPH, 180MPH, 200MPH, 240MPH, 300MPH, 360MPH, 420MPH, 480MPH, 540MPH, 600MPH, 660MPH, 720MPH, 780MPH, 840MPH, 900MPH, 960MPH, 1020MPH, 1080MPH, 1140MPH, 1200MPH, 1260MPH, 1320MPH, 1380MPH, 1440MPH, 1500MPH, 1560MPH, 1620MPH, 1680MPH, 1740MPH, 1800MPH, 1860MPH, 1920MPH, 1980MPH, 2040MPH, 2100MPH, 2160MPH, 2220MPH, 2280MPH, 2340MPH, 2400MPH, 2460MPH, 2520MPH, 2580MPH, 2640MPH, 2700MPH, 2760MPH, 2820MPH, 2880MPH, 2940MPH, 3000MPH

MSRP, As shown, MS211205



LEASE \$119/mo.	MSRP \$12,798	FINANCE 0% APR
--------------------	------------------	-------------------

**2017 Genesis G80 3.8**

**This vehicle features:**  
Premium 19" 5-spoke alloy wheels, 19" x 22" LED Headlights, 22" x 22" LED taillights

MSRP, As shown, MS211995



LEASE \$419/mo.	MSRP \$45,500	FINANCE 1.9% APR
--------------------	------------------	---------------------

**2017 Hyundai Santa Fe Sport**

**This vehicle features:**  
Sedate interior, Apple CarPlay, Android Auto, Bluetooth, LED Fog Light, Fog Light

MSRP, As shown, MS211635



LEASE \$129/mo.	MSRP \$23,527	FINANCE 0.9% APR
--------------------	------------------	---------------------

**2017 Hyundai Tucson SE**

**This vehicle features:**  
Driving Blind Spot Warning, 8 inch LED Tail Light, Apple CarPlay, Android Auto, Bluetooth, LED Fog Light

MSRP, As shown, MS211375



LEASE \$175/mo.	MSRP \$20,248	FINANCE 0% APR
--------------------	------------------	-------------------

**2017 Hyundai Sonata SE**

**This vehicle features:**  
Bluetooth, Apple CarPlay, Android Auto, LED Fog Light

MSRP, As shown, MS211305



LEASE \$129/mo.	MSRP \$18,197	FINANCE 0% APR
--------------------	------------------	-------------------

**2017 Hyundai Santa Fe SE**

**This vehicle features:**  
Sedate interior, Apple CarPlay, Android Auto, Bluetooth, LED Fog Light, Fog Light

MSRP, As shown, MS211445



LEASE \$159/mo.	MSRP \$29,003	FINANCE 0% APR
--------------------	------------------	-------------------

**한국인 딜러**



**Earl Ko** 고열  
Authorized Hyundai Dealer  
**617.755.6941**

\*Leases exclude tax, title, acquisition fee. 10k miles per year. \*All qualified rebates to dealer. \*\*Must take delivery same day from dealer stock. PURCHASE OFFER – Price includes Valued Owner or Competitive Owner Coupon, Military Rebate, College Grad Cash, Flex Coupon (1) Prime Cash Discount available to all customers. (2) Retail bonus cash available on select Hyundai models purchased from dealer stock and financed through HMLT by 10/31/2016. Customers who participate in a Special Lease or Low APR program through Hyundai Motor Finance (HMF) do not qualify for Retail Bonus Cash. \*\*\* With approved credit only. FINANCE: Available to qualified applicants, not all will qualify.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1.9% APR for 60 months is 90 monthly payments of \$17.46 for every \$1,000 borrowed. All offers expire 10/31/2016.\*



독자기고  
김철

##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연재를 마치며

2015년 4월부터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인디언의 역사를 살펴본 결과, 그들의 역사는 길 위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들이 걸었던 처음의 긴 길은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기 위한 신천지 개척의 길이었다. 그들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때보다 거의 2만년이나 앞서 동북 아시아로부터 아메리카대륙으로 건너 왔다. 베링해를 건너온 그들은 수 만 리를 계속 걸어 북미와 중미를 거쳐 남미의 끝자락에까지 이르렀다. 약 2만년 동안 천혜의 청정 자연환경에서 나름의 문명을 일구며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아오던 행복한 시절은 16세기 이후 불어 닥친 서구 열강의 식민지 진출로 막을 내리게 되고 인디언들은 그들의 안방을 백인들에게 내주고 길바닥으로 내몰리는 신세로 전락하였다. 이때부터 인디언들은 노예로의 길, 패잔병의 길, 눈물의 길, 강제이주의 길, 도피의 길에서 모진 세월을 눈물로 견뎌 왔다.

인디언들은 1978년부터 전 부족이 단결하여 이른바 '대륙횡단 걷기운동(Longest Walk)'을 벌이고 있다. 제 1차 행사 참가자들은 1978년 2월 11일 샌프란시스코의 알카트라스 섬을 출발하여 5,100km의 거리를 걸어 와서 7월 15일 워싱턴에 도착하였다. 인디언들은 이 행사를 통해서 인디언 문제에 대한 주류 미국인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한편 원주민의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자신들의 주장을

알렸다. 30년이 지난 2008년에 인디언 성소의 보전, 부족주권 존중, 그리고 환경보호를 통한 지구온난화 방지 등을 캐치프레이즈로 하여 그 두 번째 행사가 개최되었다. 2011년에는 '인디언의 당뇨병 퇴치'를 주제로 세 번째 행사를 개최되었으며, 2013년 네 번째 걷기에서는 과거 백인들이 인디언에게 저지른 박해의 역사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전과는 거꾸로 워싱턴을 출발하여 알카트라스 섬으로 되돌아가는 행사를 벌였다. 2016년 2월 13일에는 샌디에고의 라호야 공원에서 출정식을 갖고 워싱턴을 향한 다섯 번째 대륙횡단 대장정을 시작하였다. 이번 행사의 구호로는 '마약과의 전쟁'을 내걸었으며 '인디언 운동본부'의 공동 창립자인 데니스 뱅크스가 주도하였다. 행사에 참가한 일행들은 7월 15일 워싱턴에 도착했다. 그들이 보내는 진정 한 메시지는 "이 너른 미 대륙 모두는 인디언의 땅이다"라는 외침이 아닐까?

역사에는 가정법이 통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쉬움을 이야기할 수는 있다. 우리나라 아픈 역사의 산물인 비무장지대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60년 이상 잘 보존된 덕분에 오늘날 생태계의 살아 있는 보물로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전라북도보다 더 큰 옐로스톤 일대의 땅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만큼 미국인들은 통 큰 사람들이었다. 그 통을 조금만 더 키워 예를 들

어 1868년 라라미 조약에서 인정했던 라코타의 영토를 영원한 인디언의 땅으로 그대로 남겨 두었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가칭 라코타 자치지구야말로 아프리카의 세렝게티나 남미의 마추픽추를 뛰어넘어 세계에서 으뜸가는 자연 및 문화유산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일과성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실제로 일단의 라코타 인디언들이 2007년 1월 17일 워싱턴 국무부를 방문하여 라코타공화국(The Republic of Lakotah)이 독립을 선언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전달한 적도 있었다.

버락 오바마는 가장 진보적 성향이 강한 미국 대통령이다. 이런 맥락에서 오바마는 인디언 문제에 대하여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였다. 오바마는 2008년 5월 대통령 선거 운동의 일환으로 남부 몬나타주에 있는 Crow 인디언부족국가를 찾았다. 그곳에서 그는 Hartford and Mary Black Eagle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디언 부부의 양아들로 입양되어 Barack 'Black Eagle' Obama라는 이름까지 받아들였다. 그는 취임 첫해인 2009년 11월 5일에 첫 '백악관 인디언 부족 총회'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는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 2015년 11월 5일에는 제 7차 회의가 열렸다. 이번 총회에는 567개의 '연방정부가 인정하는 인디언 부족'의 대표 외에 24명의 청년 인디언 대표도 초청되었다. 오바

마 정부는 인디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청년 인디언의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믿는 것 같다. 2015년 7월 영부인 미셸 오바마는 230개 인디언 부족으로부터 1,000명 이상의 청년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하여 정부와 백악관의 고위 관계자와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고위 공무원과 백악관 직원을 인디언 부족국가로 보내어 인디언 청년들과 대화하여 그들의 생각과 요구사항을 직접 확인하도록 조치하기도 하였다. 오바마 정부는 인디언 청년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는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디언들도 수준 높은 대학 교육과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바마 임기 중 마지막인 제8차 총회는 2016년 9월 26일 개최되었다.

필자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만나본 주류 미국 시민이나 우리나라 교민들의 대부분은 역사적으로 인디언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디언의 권익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주류사회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미국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대체로 인디언에게 우호적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 질러진 물이 다시 퍼 담을 수는 없더라도 이제부터라도 더 이상 인디언들이 눈물을 흘리는 일은 없었으면 하고 염원해 본다.



###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63 화랑세기花郎世紀, 5세 풍월주風月主 사다함斯多含(15)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하게 여겼다. 알천의 땅을 주자 굳게 사양하고 받지 않고 불모지 수백 경頃을 택하여...을 받으며 말하기를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족히 근면하게 할 수 있다. ...일이 없으면 입농入農하는 것이 나의 무리들...이다" 했다.] - (이종욱 역주해)

또한 삼국사기 사다함 열전에 나오는 가야 정벌에 관한 기록도 함께 인용한다.

[진흥왕이 이찬 이사부異斯夫에게 가라국(加羅國: 가라加羅 또는 가야伽耶로도 쓴다)를 습격케 했다. 이때 사다함은 나이 15~6세였는데, 군대를 따라갔다. 왕은 사다함이 어리다 해서 허락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여러 번 진심으로 청하고 뜻이 확고하였으므로 마침내 명을 내려 귀당비장을 삼았는데, 그의 낭도 중에 따르는 자 또한 많았다. 그 나라 경계에 이르자 원수元帥에게 말해 휘하 군사를 거느리고 먼저 전단량(성문 이름이다. 가라 말로 문門을 양梁이라 한다)으로 들어갔다. 그 나라 사람들이 뜻밖에 군사가 쳐들어옴을 보고 놀라 막지 못하므로, 대군이 여세를 몰아 드디어 그 나라를 멸했다. 군사가 돌아오자, 왕은 공을 가려 가라 사람 300명을 주었다. 하지만 사다함은 이를 받아 다 풀어 주고 한 사람도 남겨 놓지 않았다. 또 전지田地를 내렸으나 받지 않으려 했다. 왕이 억지로 권하므로 알천關川 일대 쓸모없는 땅을 달라고 할 따름이었다.] 삼국사기에 나오

는 사다함 열전 중에서 앞 부분의 그의 가계와 뒤이어 나오는 그의 죽음에 관한 부분을 빼야 정벌 부분의 전문이다.

양화공주는 신라의 공주이다. 선혜부인(소지왕의 정비)과 호조 사이에서 태어났다. 법흥왕의 명에 의해 대가야의 이니왕과 혼인하였다. 그리고 대가야의 태자인 월광과 마지막 왕인 도설지왕, 월화공주(진흥왕의 후비) 등을 낳았다. 즉 위의 화랑세기의 내용은 대가야의 마지막 왕인 도설지가 태자 월광을 앞세워 많은 야인(189) 들을 거느리고 신라에 반기를 들었다. 그래서 진흥왕은 이사부에게 명하여 대가야를 진압케 하였다. 이 과정에서 화랑의 표상인 사다함의 진면모가 들어난다. 화랑도의 세속오계(190) 중 가장 으뜸인 사군이충事君以忠(충성으로써 임금을 섬기어야 한다)의 정신으로 어린나이였지만 대가야 진압에 출정을 요청하였다. 화랑세기에는 진흥왕이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몰래 자신의 낭도들을 거느리고 출정했으며, 삼국사기에서는 여러번의 간청 끝에 허락을 받아서 출정했다고 기록되어있다. 그리고 전쟁 중 사다함의 활약상 역시 세속오계의 임전무퇴臨戰無退(싸움에 나가서는 물러남이 없어야 한다) 정신으로 나라와 임금을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선봉에 서서 승리로 이끄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웠다. 전공戰功으로 받은 300명의 가야인(生口)들은 다 풀어주었고,

또한 많은 전지田地는 부하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는 살생유택殺生有擇(살아 있는 것을 죽일 때에는 가림이 있어야 한다)과 교우이신交友以信(믿음으로써 벗을 사귀어야 한다)의 정신을 실천하였다. 또한 사다함은 효자의 표상이었다. 어머니 금진이 색녀로서 상당히 문란하였지만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성심은 사친이효事親以孝(효로써 부모를 섬기어야 한다)의 가르침에서 나왔을 것이다. 특히 그의 죽음을 보면 교우이신交友以信의 정신을 넘어 한번 한 약속을 죽음까지 함께하는 사우死友였다. 사다함은 벗이자 부하낭도인 무관량의 뜻하지 않은 죽음에 식음을 전폐하면서 애통해하다가 7일만에 죽었다. 화랑도의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요절하였다.

189) 야녀野女와 야인野人이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인지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종욱은 왜와 관계가 있는 집단으로 추측했다. 화랑세기의 기록으로 보면 가야의 지배세력은 가야에 거주하는 야인들을 지배하고 통제하였다.

190) 세속오계는 후일 진평왕 때 원광법사가 귀산과 추향의 요청으로 준 수신계修身戒이다. 이 때 원광이 "... 지금 세속오계가 있으니..." 하면서 그들에게 주었으니 화랑의 세속오계는 이미 진흥왕 시대에도 있었다.

무료입장



토요일  
2017년 2월 4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 설날 행사

MFA 에서 한국, 중국, 베트남의 전통 문화를 경험하세요. 이 날 하루 각국의 전통 예술, 각종 활동과 문화체험 및 공연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mfa** Museum of Fine Arts Boston

[mfa.org/lunar](http://mfa.org/lunar)

Presented in partnership with Boston Chinatown Neighborhood Center, the Korean Cultural Society of Greater Boston, and the Chinese Culture Connection.



Boston Chinatown Neighborhood Center, Inc.  
152 1/2 街 112 號 112 號 中心  
members.us | 617-452-1626



Korean Cultural Society of Boston



華僑文化協會  
CHINESE CULTURE CONNECTION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 人

## 瞎 (할)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瞎眼할안)으로 난 것이 뉘 죄로 인함이니가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His disciples asked him, "Rabbi, who sinned, this man or his parents, that he was born blind?"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Neither this man nor his parents sinned," said Jesus, "but this happened so that the work of God might be displayed in his life. - 요한복음 9장 2절-3절.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을 깬다. 25일 인터뷰에서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을 부인했다.

박 대통령 자신이 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됐거나 갖을 청와대에서 했다는식의 의혹들에 대해 "그런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만들어 내야 했다면 탄핵근거가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또는 "얼마나 많은 오해와 허구와 거짓말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가 하는 것으로 역(逆)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실제 '향정신성(向精神性)의약품'이나 '굿' 등은 근거가 없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박 대통령은 그동안 확인되고 규명된 내용까지 일체 '거짓말'이라 못 박았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박 대통령이 대기업을로부터 800억원 가까운 돈을 건어서 검증된 공인(公人)이 아닌 최씨라는 무자격자에게 송두리째 맡겼느냐는 것.

공익이 목적이었으면 객관적 이해를 얻기가 쉽지 않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한 해명이나 설명이 희박했다. 까닭에 미르·K스포츠단을 퇴임 후 사적으로 이용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끌어 들인 것.

박 대통령은 최순실 사태에 대해 "오래 전부터 (누군가) 기획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라 했다.

알려졌다시피 국정 농단이 알려진 것은 최 씨 일당 내의 내분 때문이었다. 그 조작(造作)을 누가? 알 수 없다는 것.

그는 촛불 집회를 광우병 시위와 비슷하다고도 했다. 촛불 시위에 문제가 있으나 광우병 시위와 비교할 일은 아니라고.

박근혜 대통령도 항변할 수 있고 법적 방어권도 행사할 수 있다.

실제로 근거 없는 억측이 적지 않다. 그러나 박 대통령도 지지층만을 향한 일방적 호소가 아니라 대부분 일반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대중적이고 합리적인 진솔한 설명을 했으면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규재TV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된 '누드(Nude) 패러디'에 대해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아무리 심하게 한 다 해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시(展示)를 주선한 표창원 민주당 의원과 작가가 아무 죄(罪)의식 없이 쉽게 그 한계를 넘을 수 있다는 걸 보면서 그것이 현재 한국정치의 현주소라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누드화 과문이 여성대통령에 대한 집단적이고 짓궂은 관심이라 느끼냐"고 묻자 "그렇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누드패러디는 우리나라에 여전히 남아있는 '여성비하'라고 생각한다"면서 "내가 여성대통령이 아니면, 여성이 아니면 그런 비하를 받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방문한 여러 외국에서 유교권의 한국이 여성대통령을 낸 것에 대하여 놀라워하고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면서 "그들이 이런 난리도 아닌 여성비하를 보면서 그동안 한국에 대해 가졌던 좋은 이미지(Image)가 많이 무너졌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최순실 관련 현재 재판절차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 결과를 수용하겠느냐"는 질문에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 그 이상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재판 출석 가능성에 대

해선 "아직 검토된 바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특검조사에는 임하려고 한다"면서 "특검과 변호인단이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인터뷰에 대해 "우리 시대의 부끄러움이자 수치"라고 했다.

금 의원은 민주당 탄핵추진 실무준비단의 간사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직접 작성했다.

금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뉴스쇼에서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 안해도 좋다. 다만 시간을 끌고 임기를 어떻게 채워보자는, 이런 대통령'은 아마 역사상 찾아보기도 힘들 것"이라며 "언제까지 국민들을 창피하게 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발언했다.

금 의원은 "최순실이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억울하다, 진술을 강요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했는데 박 대통령은 그것을 받아서 '이 모든 것이 음모다. 기획이다. 억울하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인터뷰와 최 씨 발언의 목적은 헌법재판인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혼동 시켜서 시간을 끌고 버티기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닌가 추측케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도 출석을 하지 않았고 탄핵재판에도 출석치 않아 말은 하고 싶고 이런 형식을 취한 것"

瞎할: 一目盲目瞎 - 애꾸눈 할. 두 눈이 있어야 눈(目)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一目瞎 즉 한쪽 눈의 시력이 없으면 "예수님을 반쪽만 볼 수 있다"는 것. 눈 목(目)자는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가 천국(天國)에 하나님(-) 다음 두번째(二) 주인(主人)이심"을 뜻하는데...

한 쪽 눈이 가리웠으므로 一目盲目瞎 즉 애꾸눈이어서 사물의 전체를 못 본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And so Jesus also suffered outside the city gate to make the people holy through his own blood.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Let us, then, go to him outside the camp, bearing the disgrace he bore. For here we do not have an enduring city, but we are looking for the city that is to come. - 히브리서 13:12-14.

히브리서 13:13 "영문 밖으로 그(예수님)에게 나아가자". 구약에 의하면 "영문 밖" 또는 "진 밖"은 부정한 장소를 뜻한다.

과거 광야시대의 제사제도에 따르면 속죄제를 드릴 때 피는 취하여 제단에 올리고 그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영문 밖"에서 불태웠다. (출애굽기 29:14)

해서 예수 그리스도 역시 예루살렘 성 밖의 부정한 장소인 골고다에서 죽음을 당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은 온갖 수치와 곤욕을 치르는 핍박(逼迫)을 받을 수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처방은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렁이에 빠지리라". "Leave them; they are blind guides. If a blind man leads a blind man, both will fall into a pit." - 마태복음 15:14.

한국의 오늘이 이 길 잃은 할자(瞎子)가 아니기를 기도(祈禱)할 수 밖에.

## HANKOOK AUTOBODY INC. 978.664.2321

한국말 문의 전화 가능!



- 무료 견적서
- Auto body 사고 수리 및 페인트
- Insurance 수리 및 Deductible 세이브
- 프레임 스트레이너 머신 및 베인투스 완비

126 Main St North Reading

\*\*\*

한국 오토바디샵

11월 14일

GRAND OPEN




영업 시간

M-F: 8:00~5:00

SAT: 8:00~12:00

-경백-

- 현대 자동차 서비스 공제 사업(대림남부 사업소 판금 도장부 근무)
- Herb chamber 브레이크 콜라본 센터 근무(M-benz, Bmw, Mini, Lexus, Ford)
- Bernadi Boston body shop 근무 (Honda, Acura, Auk, Toyota)
- Tansky Toyota 근무 (모든 Toyota 차량)
- Calvin's auto body 운영
- 20년 Auto body work!



126 Main St. Unit 10, North Reading MA 01864 | Tel:978.664.2321, Fax:978.664.2314

E-mail:autobody.hk@gamil.com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앤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앤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70) 인덱스 펀드와 백만장자

미국에 백만장자는 무려 800만 명입니다.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 240만 명의 새로운 백만장자가 탄생했고 2020년까지 또 새로운 백만장자는 310만 명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것은 1,700명이 매일 새로운 백만장자가 되는 숫자입니다.

“부자는 더 크게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 (The richer get richer and poor get poorer.)” 라는 말은 영국 시인 퍼시(Percy Bysshe)가 1821년에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1832년 미국 대통령인 앤드루 잭슨이 반복했습니다. 이 말이 현재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1980년부터 2015년 사이 평균 소득은 인플레이션을 계산한 후 61%가 증가했습니다. 늘어난 증가분 10달러당 7달러는 소득 상위 10%가 차지했습니다. 주원인은 자본수익입니다. 상위계층일수록 주식, 채권, 부동산 투자, 등으로 주식가격 상승, 배당금, 이자, 임대료가 많아 소득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입니다. 임금에만 의존한 빈민층이나, 소득은 중상층이

지만 집, 자동차, 등 여러 소비로 투자하지 못한 층은 자산이 불어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부자들의 자산은 작년 한 해만도 13%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2009년 3월부터 미 주식시장(S&P 500 지수)에 1불을 투자했다면 3불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50만불 투자는 현재 150만불로 증가한 숫자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50만불 투자가 80만불만 불어나도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 70만불 손해(Opportunity Cost)로 계산해야 합니다.

결혼(?)을 잘해서 바로 부자 되는 사람도 있고 로또 당첨으로 부자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자 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부자가 된 대부분 사람이 부자가 된 이후 주식시장에 투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자가 된 주된 이유는 적은 수입이라도 꾸준히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22살부터 로스(Roth) IRA에 \$5,000씩 10% 이자로 투자하면 은퇴할 나이 62살까지 투자하면 노후자금 200만 불이 모여

집니다. 이 은퇴자금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이자로 IRA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 금액 \$5,500씩 30년 투자하면 약 100만 불이 됩니다. 투자를 늦게 시작한 투자자가 401(k)에 최대 금액 \$18,000씩 20년 투자해도 100만 불 이상이 됩니다.

2008년 이후 주식시장은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는 주식시장이 다시 폭락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투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지난 9년 동안 연평균 14.5%씩 증가한 수익률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투자의 두려움으로 받을 수 있는 수익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주식시장이 너무 상승한 것 같아 투자하지 못하고 주식시장만 바라보고 있는 투자자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투자자는 결코 투자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기다리던 주식시장이 폭락했습니다. 투자했던 투자자도 두려워서 팔고 나오는 시

점에 새롭게 투자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년 동안에도 주식시장은 끊임 없이 오르고 내림을 반복했습니다. 20년 전 다우 존스는 5,000이었습니다. 현재 다우 존스는 20,000이라는 기록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20년이라는 오랜 주식시장을 돌이켜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작년 1월 초에 다우 존스는 10% 이상인 2,000 포인트 폭락으로 15,766(2016년 1월 21일)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러던 주식시장이 결국에는 수익률 11.9%로 2016년 한 해를 마감했습니다.

경비가 저렴한 인덱스 펀드를 이용하여 자산분배와 분산투자가 된 포트폴리오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락하는 주식시장에서도 투자 위험을 적게 받고 상승하는 시장에선 높은 수익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형성된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이유이며 결국에는 성공하는 투자로 이어집니다. 2017년에는 여러분 모두가 백만장자가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 당신의 주파수

공명효과는 음악에서 어떤 음을 울리면 곁에서 같은 음이 따라 울리는 효과를 말한다. 가령 기타에서 '미'음을 튕기면 다른 줄에 있는 '미'음도 같이 진동한다. 이는 공기중에서 그 무엇이 진동하면 같은 주파수의 다른 것도 같이 진동 한다는 물리학적 현상이다.

사람이라는 생물체는 속이 짝 찬 생물체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다시 과학으로 바라 보면, 우주의 모든 사물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 원자가 모여서 어떤 객체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 원자는 작은 핵에 전자가 그 주위를 돌고 있다. 핵과 전자의 거리에 엄청난 공간이 존재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원자는 전자의 회전으로 인해서 진동한다. 그 진동이 심해서 전자가 원자를 떠나면, 그것이 열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뜨거운 것은 그만큼 더 진동 한다고 보면 된다. 쉬운 예로, 철사를 굽혔다 폼다, 굽혔다 폼다를 계속하면 결국 철사가 끊긴다. 그리고 끊긴 부분이 상

당히 뜨거워진다.

사람은 진동의 객체이다. 그래서 공명 효과가 나타난다.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상한다. 그리고 기분이 상한 사람을 상대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안 좋아진다. 반면에 기분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된다. 영어에 "Woken up on the wrong side of the bed" 라는 표현이 있다. 직역하면 '침대의 반대쪽에서 일어났다'라는 표현인데, 의역은 "뭔가 아침부터 일이 꼬이는 날이다"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침에 잘못된 진동 주파수로 하루를 시작해서, 결국 그 안 좋은 주파수로 하루를 보내게 되는 경우가 아닌가 생각된다.

산모가 예쁜 사진만 보고, 예쁘게 생긴 과일 먹고, 좋은 이야기만 듣고 해서 태교를 하는 이유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벅속의 아이에게 좋은 진동을 전파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는 태아가 아니지만 주파수의 진동이 주는 효과는 같다고 본다. 우리 주변에 항상 우리를 기쁘

게 하는 좋은 주파수의 친구가 있다. 그 친구가 나의 의사, 변호사, 목회자, 아니면 자신의 자녀가 될 수도 있다. (참, 부동산 전문가를 잊었네...) 사람들은 좋은 주파수의 진동의 사람과 더 많이 더 자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

반면에 자신에게 나쁜 진동을 주는 사람도 있다. 자신의 가게에 오는 손님 중에 꼭 트집을 잡는(?)이나, 잔소리가 심한 상사, 늘 빼놓아진 말만 하는 동창 등등. 우리는 이런 사람과 접하고 나면, 그날 하루는 기분이 상한다. 그래서 되도록 그들은 피하려 한다. 사람뿐만이 아니고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는 주파수를 느낀다. 남편이 바람 피우는 드라마를 보는 아내는 남편을 짜려보면서 "당신도 나 몰래 바람 피우는 것 아니야?"하고 나쁜 주파수를 전파한다.

나의 비즈니스 철학은 좋은 주파수이다. 거래는 성사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그러나 주파수의 진동은 남는다. 거래가 성사 되어도 입맛이 씹쓸한 기분으로

남는 것보다는 거래의 성사에 관계 없이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하는 주파수가 중요하다고 본다. 사람들의 관계를 연결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주파수의 진동이기 때문이다. 나의 상담은 항상 "손님, 주택 매매를 좋은 기분으로 경험하시는 것이 저의 제일 중요한 목표입니다."이다.

###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성기주 변호사 칼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 소식 (2017년 1월 넷째주)**

●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관련 행정명령**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했듯이 트럼프 대통령도 행정명령을 통해 이민법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관련 행정명령은 생각보다 빠른 1월 26일과 1월27일 발표됩니다. 다음은 미국 안보와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룬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관한 주요 내용입니다. 크게 국경 (Border Security), 미국내 안보 (Immigration Enforcement) 그리고 비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분류됩니다. 국경과 미국내 안보와 관련해서는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는 것 외에 5,000 여명의 국경 관리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고, ICE(이민경찰)의 인력을 최대 3배이상 충원하며 친이민도시에 대한 규제 (Crack Down Sanctuary Cities)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경장벽, 인력충원 등의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지, 친이민도시들

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제재할 지 등 벌써부터 많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물론, 위의 내용들이 대부분의 한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모든 이민 신청자들에게 대한 신분조회를 의무화하는 명령과 법이 예외하지 않는 한 모든 비자 신청자들에게 대한 인터뷰를 의무화 하는 명령등은 이민신청과 비자신청의 지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추가로 발표되는 자료를 토대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자 비자 (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

국토안보부는 1월17일, 지난 오바마 정부에서 시작된 사업자에 대한 비자 작업을 마무리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이 비자는 오는 7월17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래는 몇가지 중요 자격요건들입니다.

1.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난 5년안에 설립된 사업체이어야 하며 급속한 성장과 고용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비자 신청자는 사업가이어야 하며 새로 설립된 사업체를 발전시킬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새 사업체의 10% 이상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자신의 사업역량을 새 사업체의 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3. 새 사업체는 적어도 \$250,000의 투자를 미국기업이나 단체로 부터 받거나 \$100,000의 투자를 정부기관(연방정부, 주정부, 시/타운 정부)으로 부터 받아야 합니다.
- 위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처음 30개월의 미국체류가 보장되며 동반 배우자에게는 EAD(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도 부여됩니다. 30개월의 연장 기회까지 합하면 총 5년간 이 비자로 미국에서 체류하며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 또한, 새 사업체를 통해 최대 3명의 사업자가 이 비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 영주권 개정안**

지난 1월 13일 국토안전부는 투자이민 (EB-5) 개정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직 개정 제안단계이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먼저, 투자액의 인상이 제안됐습니다. 기존의 \$1 Million(백만 불) 또는 \$500,000(오십만 불)의 최저 투자액들이 각각 \$1.8 Million 과 \$1.35 Million 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기존의 오십만 불(또는 개정 후 \$1.35 Million)의 최저투자액 대상지역(TEA) 선정 기준이 좀더 까다로워 집니다. 특히, 인구 2만명 이상 거주 지역만 TEA 혜택을 받는 것으로 개정되면 미개발 지역의 투자를 통해 받게되는 오십만 불 최저투자액 혜택은 더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Song Law Firm"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대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 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톤 사무실 전화: 617-489-1327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이민법]**

**전공별 H-1B 성공 전략: 컴퓨터 관련 전공자**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트럼프가 반이민 정책을 주장하고 외국인 취업에 대한 규제를 이야기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의 근거들 중 하나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에 의지하고 있는 컴퓨터 업계의 로비 활동이었습니다. 컴퓨터 업계는 학사 이상의 외국인 고급 노동자들을 가장 많이 고용하고 H-1B비자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산업군입니다. 2016년의 통계를 보면 컴퓨터 시스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Infosys Limited는 총 25,000개 이상의 LCA를 신청하고 거의 대부분 승인을 받았습니다. 영주권 관련 수속도 연 300여건 이상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IBM, Microsoft와 같은 컴퓨터 회사들도 2016년 가장 많이 H-1B를 스폰서한 회사 상위 10개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17년에도 이런 추이는 계속되어 가장 많은 H-1B를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H-1B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자신이 취업하려는 직책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또는 동등

한 수준의 전문 경력을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려는 업무가 전문직종(Specialty Occupation)에 해당하는 것이라야 합니다. 어떤 직업이 전문직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입증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민국은 (1) 취업하려는 직종에서 관련 분야의 최소 학사 학위 이상의 자격을 일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우; (2) 학사 학위 이상의 요구사항이 해당 산업 직종군에서 보편적이거나 또는 해당 직종의 업무가 매우 복잡하고 특수하여 학사 학위 소유자만 수행할 수 있는 경우; (3) 고용주가 해당 보직 채용시 항상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를 채용해온 경우; 또는 (4) 해당 보직의 업무가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하여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학사 학위 이상의 지식이 필요한 경우, 이상 네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H-1B 전문직종으로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행인 점은 대부분 컴퓨터 관련 직종은 최소 학사 학위 이상을 필요로 하는 직군임이 이민국 내에서도 인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민국과 노동청 통계에 의하면

최근 수년간 H-1B 비자 승인 직종 상위 10위권 내에 컴퓨터 관련 직종이 최소 5-6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기업에서 컴퓨터 관련 전공자의 채용시 Computer Programmers, Software Developers, IT Analysts, Computer Systems Analysts, IT Specialists, IT Administrators, Network Administrators, Database Administrators, Computer Systems Engineers, IT Systems Managers 등의 보직(Job title)을 사용하며, 이들 업무는 최소 컴퓨터 관련 학사 학위가 요구되는 전문직종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모든 컴퓨터 관련 업무가 전문직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전 케이스들을 고려해보면 Computer User Support Specialists와 같이 Help Desk를 제공하는 수준의 업무 또는 Web Administrators는 H-1B 에서 요구하는 전문직종이 아닌 것으로 이민국이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직책에 대한 구직 제의를 받은 경우 H-1B 신청을 필요로 하는 컴퓨터 전공자는 해당 고용주와 업무 영역 확대에 대한 협의의 해를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컴퓨터 관련 업종의 H-1B 신청자들은 다른 영역과 달리 미국 고용주와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Employer-Employee Relation)를 확실히 증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컴퓨터 관련 직종 종사자들을 살펴보면 프리랜서라고 하는 계약직(Independent Contractor)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H-1B수혜자와 고용주의 관계가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이라는 점을 매우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따라서, 취업시 이 부분에 대해 고용주와 명확히 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고용계약서를 받아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구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 SONGLAWFIRM

송동호 종합로펌 최강 이민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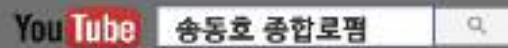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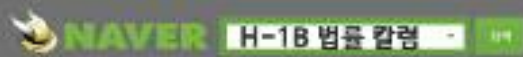
# SONG LAW FIRM

## ATTORNEYS & COUNSELORS AT LAW



### 취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불확실한 트럼프 시대의 **H-1B**, 송동호 종합로펌이 함께 합니다.

전공별 H-1B 성공전략을 담은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만의 스페셜 칼럼! H-1B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 H-1B 가능 전공

Computer Science / Software Engineering  
Information Systems / Technology  
Architecture / Urban Planning & Engineering

Business Administration / Marketing / Accounting  
Hospitality Business / Hotel Management  
JD / LL.M. / Law School

Art & Design / Fashion Design / Interior Design  
Social Sciences / Sociology / Psychology  
Physical Therapy

### 👔 기업 고객

국제법  
금융법  
노동 및 고용법  
보험회사 관련 소송  
부동산  
상법 및 M&A

소송  
이민법  
임대인, 임차인 관계법  
지적 재산법  
프랜차이즈법

### 👤 개인 고객

가정법  
노동 및 고용법  
부동산법  
사고 손해  
상법  
세금, 상속, 유언

소송  
이민법  
임대인, 임차인 관계법  
지적 재산법  
티켓, 지역 법원 관련 업무  
파산

T | 617.489.1327    MAIL@SONGLAWFIRM.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ive,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BELMONT    385 Concord Avenue, Suite 002, Belmont, MA 02478

songlawfirm1

songlawfirm LLC

songlawfirm

SONGLAWFIRM.COM

HQ | Parker Plaza, 400 Kelby St., 7th Floor, Fort Lee, NJ 07024 | T 201.461.0031 | F 201.461.0032 | mail@songlawfirm.com

CALIFORNIA | CONNECTICUT | D.C./VIRGINIA | MARYLAND | MASSACHUSETTS | NEW YORK | NEW JERSEY | PENNSYLVANIA | KOREA | CHINA

사업의 시작은

# Lee Associates

# 이경해 부동산

##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20% 현금, 영주권, 크레딧 700+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에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바스틀, 런드로맷(Laundromat) 상물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 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킹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남쪽 동양식당 연매상 \$1.2M 히바치+스시, 플리커 면허증  
좋은 매매가격 \$300,000

보스톤 서쪽 드롭오프+셔츠유닛 연매상 \$85,000 소유자 은퇴 매매가격 \$19,000

보스톤 남쪽 동양식당 플리커 면허증, 대학가 연매상 \$300,000 고급동네

아침/점심 보스톤쪽 주6일 영업 연매상 \$300,000

로드아일랜드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단독건물, 셀러은퇴(건물주)

보스톤 북서쪽 투자상가건물 11유닛, 연수입 \$110,000

보스톤 남쪽 컨비니언스 + 로터리, 연매상 \$900,000 + 로터리 커미션(\$70,000)

체스넛힐 드롭오프, 연매상 \$250,000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4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다운타운 보스톤 컨비니언스 + 델리, 연매상 \$650,000  
Beer&Wine 면허증, 주방 확장 가능

뉴햄프셔 동양식당 + 플리커, 연매상 \$30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드롭오프, 연매상 \$155,000 좋은 매매가격 \$65,000

케이프코드 동양식당 연매상 \$160,000 높은 순수익

보스톤 서쪽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600,000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세탁소 셔츠유닛, 연매상 \$99,000 좋은 위치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36,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보스톤 서쪽 드롭스토어 2곳, 연매상 \$300,000 과 \$25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10,000 18년만에 은퇴, 매매가격 \$35,000

보스톤 북쪽 건물; 2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가격 \$980,000

보스톤 Full Plant+드롭, 연매상 \$710,000 35년 경영, 소유자 은퇴,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드롭가게 연매상 \$193,000 고급동네, 좋은 렌트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800,000 Beer&Wine 면허증소지, 복권, 매매가격 \$119,000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매매가격 \$139,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525,000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 보스톤 교육원

###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 아카데믹 프로그램

#### SAT 1, 2/AP 수업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  
단기 고득점 완성  
실전 문제 중심 수업  
상시 참여및 주말수업 가능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 학업 과목 개인과외 가능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역사,  
경제, 심리학, 기타 과목들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 Weekend Program

#### 1. SAT I Class

-각 파트별 균형잡힌 시간배분  
-실력있는 강사진  
-새로운 문제유형에 따른 수업

#### 2. SAT II subjects class

Math IIC, Physics, Chemistry  
Biology

#### 3. AP 전과목 및 선행학습을 위한 개인수업

### 2018 College Process

대상: 현 11 학년(Junior)

모집기간: 2015년 2월 말까지

-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한 정확한 컨설팅  
- 체계적인 계획에 맞춘 빈틈없는 일처리

### 경시대회준비

수학 경시 준비(AMC/AIME)

외국어 경시 준비

(Latin, Spanish, French)

과학 올림피아드 준비

(생물, 물리, 화학)